

저자 정조
국역 구현희
해제 구현희

국역
壽民妙詮

【雜病篇】



ISBN 978-89-5970-602-0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서문 序	1.1
《수민묘전》 권2【잡병편】 壽民妙詮 卷之二【雜病篇】	1.2
천지운기 天地運氣.	1.2.1
의사는 마땅히 천지 간의 운기(運氣)를 알아야 한다. 醫當識天地間運氣.	1.2.1.1
오운(五運)의 해에는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다. 五運之歲, 太過不及.	1.2.1.2
6개의 갑년은 둔부(敦阜)의 해다 六甲年敦阜之紀.	1.2.1.3
6개의 병년은 만연의 해다 六丙年, 漫衍之紀.	1.2.1.4
6개의 무년은 혁희의 해다 六戊年, 赫曦之紀.	1.2.1.5
6개의 경년(庚年)은 견성(堅成)의 해다 六庚年, 堅成之紀.	
6개의 임년은 발생의 해다 六壬年發生之紀.	1.2.1.7 1.2.1.6
6개의 을년(乙年)은 종혁(從革)의 해다 六乙年, 從革之紀.	

6개의 정년은 위화의 해이다. 六丁年, 委和之紀. 1.2.1.8

6개의 기년(己年)은 비감(卑監)의 해이다. 六己年, 卑監
之紀. 1.2.1.10

6개의 신년은 학류(涸流)의 해이다. 六辛年, 涸流之紀. 1.2.1.11

6개의 계년(癸年)은 복명(伏明)의 해이다. 六癸年, 伏明之紀.

60년의 주기, 객기와 사람의 질병 六十歲, 運氣主客
及民病. 1.2.1.13

병의 진찰 審病. 1.2.2

신성한 의술과 교묘한 기술. 神聖工巧. 1.2.2.1

명당(明堂)에서 안색을 살핀다. 明堂察色. 1.2.2.2

오색으로 예후를 본다. 五色占吉凶. 1.2.2.3

체내 질병의 기전 內經病機. 1.2.2.4

오장(五臟)은 몸의 강건함의 근간이다. 五臟者, 身之強. 1.2.2.5

병에는 다섯 가지 사기(邪氣)가 있다. 病有五邪. 1.2.2.6

오색, 오취, 오미, 오성, 오액 五色、五臭、五味、五聲、五
液. 1.2.2.7

기, 혈, 담, 화의 구분 辨氣、血、痰、火 1.2.2.8

밤낮에 따른 병의 경중 凡病晝夜輕重 1.2.2.9

병이 낫는 날짜와 시간 病愈日時 1.2.2.10

다섯가지 실증과 다섯가지 허증 五實五虛	1.2.2.11
음양에 따라 생기는 병 陰陽生病	1.2.2.12
음양의 허실(虛實)과 성쇠(盛衰) 陰陽虛盛	1.2.2.13
안으로 정신이 손상되는 것 內傷精神	1.2.2.14
한랭과 열기가 형체와 기운을 손상시킨다. 寒熱傷形氣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법 求屬法	1.2.2.16 1.2.2.15
병을 치료하는 법 療病式	1.2.2.17
세가지 고칠수 없는 경우와 여섯가지 고칠수 없는 경우 三不治 六不治	1.2.2.18
3대를 내려온 의사를 귀하게 여긴다 醫貴三世	1.2.2.19
사계절에 따라 생기는 병 四時生病	1.2.2.20
온갖 병의 발생 百病始生	1.2.2.21
모든 병은 아침에 가볍고 밤에 심해진다 百病朝慧夕加	
정상에 어긋난 것이 병이다 反常爲病	1.2.2.23 1.2.2.22
살찌고 마른 것으로 병을 구분한다 肥瘦辨病候	1.2.2.24
사기와 정기에 의한 허실 邪精虛實	1.2.2.25
삼허、삼실 三虛三實	1.2.2.26
맥은 순응하는데 병증이 상반되는 경우 脈從病反	1.2.2.27

표본의 상반 標本相反	1.2.2.28
오한、오열 惡寒惡熱	1.2.2.29
모든 병은 여유와 부족을 구별해야 한다 凡病辨有餘不足	
병에 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凡病有形無形	1.2.2.30
삼초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三焦不歸	1.2.2.32
남녀의 병인 男女病因	1.2.2.33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하면 병이 된다 升降失常爲病	1.2.2.34
음증、양증의 구분법 辨陰陽二證	1.2.2.35
5가지의 역증 病有五逆	1.2.2.36
오미가 들어가는 곳 五味所入	1.2.2.37
오장육부의 기로 생기는 병 五氣所病	1.2.2.38
오정이 아우르는 것 五精所并	1.2.2.39
오장이 싫어하는 것 五臟所惡	1.2.2.40
오장의 진액 五臟化液	1.2.2.41
오미를 금하는 것 五味所禁	1.2.2.42
오병이 생기는 것 五病所發	1.2.2.43
오사가 나타나는 것 五邪所見	1.2.2.44
오장이 저장하는 것 五臟所藏	1.2.2.45

오사가 어지럽히는 것 五邪所亂	1.2.2.46
오장이 주관하는 것 五藏所主	1.2.2.47
다섯 가지 과로로 인한 손상 五勞所傷	1.2.2.48
오맥이 상응하는 모양 五脈應象	1.2.2.49
맥에는 신(神)이 있어야 한다 脈當有神	1.2.2.50
맥은 위기(胃氣)를 근본으로 삼는다 脈以胃氣爲本	1.2.2.51
진장맥 眞藏脈	1.2.2.52
손맥、지맥 損至脈	1.2.2.53
이경맥 離經脈	1.2.2.54
색맥、촉맥、결맥、대맥은 모두 중간에 멎는다 濇促結代脈皆中止	1.2.2.55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序¹

서문

醫者, 所以濟群生也。故曰: 事親者不可以不知醫, 層顧可賤哉。我東風俗恥從事於方術。此固崇儒之所致, 而醫亦儒術中一端。雖以宋朝治法之專尚儒術, 太宗有親撰《太平聖惠方》, 仁宗有親撰《皇祐濟衆方》, 以及孫思邈、沈括、蘇軾, 亦皆各有成書。曷嘗如東人之賤而恥之哉。予自少耽看醫書, 自丙戌至丙申十載, 無解帶時其於脈訣、藥性, 自有所房通者。然人稟之, 今古有異, 東西之風氣不井。古今醫書中, 苟求其切於我東之用, 莫如陽平君許浚《東醫寶鑑》一書。但其論理論方相與錯雜, 體例頗欠整齊。予稍更其例, 撮其精華, 又以湯液各方別爲續編以附之, 名曰《壽民妙詮》。

의사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는 자이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자는 의술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하였으니, 어찌 천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의술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는 유학을 숭상한 결과이지만, 의술 또한 유학의 한 부분이다. 비록 송나라 조정에서 다스리는 방법으로 유학을 전적으로 숭상하였지만, 태종(太宗)은 직접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을 저술했고, 인종(仁宗)은 《황우제중방(皇祐濟衆方)》을 선별하여 봤으며, 손사막(孫思邈)、심괄(沈括)、소식

(蘇軾) 등도 각자 의서를 저술했다. 어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천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했겠는가. 나는 어려서부터 의서 보기를 즐겨 병술년(丙戌年)부터 병신년(丙申年)까지 10년 동안 허리띠를 풀 새도 없이 맥결(脈訣)과 약성(藥性)에 대해 스스로 통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체질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동서양의 풍토도 같지 않다. 고금의 의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을 구한다면 양평(陽平)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 한 책만 한 것이 없다. 다만 그 이론과 처방이 서로 뒤섞여 있어 체제가 다소 정연하지 못하다. 내가 그 체제를 약간 바꾸고 정수를 뽑아내어, 다시 〈탕액편(湯液編)〉의 각종 처방을 별도로 속편을 만들어 붙이고, 《수민묘전(壽民妙詮)》이라 이름 지었다.

○親撰序曰：

○정조 〈친찬서〉에:

予故不解醫然, 醫人醫國, 其理固一也. 今夫岐扁以下, 古名醫所命丸劑湯飲之, 愈人疾, 起人死者, 在國則三代、漢、唐、宋、明之良法美制也. 其所論病, 崇之六氣、五勞七傷、證之虛實、寒熱、脈之浮沈遲數、種種差別之存乎人者, 在國則當時之弊源物情也. 爲國者, 必先究其弊源之所在, 察其物情之所宜, 然後按古法之當乎今者而行之, 則危可安, 亂可治也. 苟或昧然於弊源物情, 而惟謂是良法美制也, 雜試而並用, 則不惟無益, 其不病國也者幾希矣. 然則醫者之所先務, 居可知已. 願今之醫者率不致力於脈證, 而徒誦其湯丸之名,

臨病則不能確見, 其崇之在何臟何經, 摸索影響而遽試其所疑, 雖欲有瘳得乎. 無論神聖工巧, 卽周禮所稱下醫亦十無一二者. 良以是也. 是固學醫者之過, 抑爲方而教之醫者, 輒皆混脈證湯丸於一編之中, 故有以岐其志, 貳其工而啓其趨徑求速之弊耳, 予病之久矣.

나는 본래 의술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그 이치가 본래 하나이다. 지금 기백과 편작 이래로 옛 명의들이 처방한 환약과 탕약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는 삼대(三代)와 한(漢)·당(唐)·송(宋)·명(明)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와 같은 것이다. 그들이 논하는 병에 대해 육기(六氣)·오로칠상(五勞七傷)을 중시하고, 허실(虛實)·한열(寒熱)을 진단하며, 맥의 부침지삭(浮沈遲數) 등 사람에게 존재하는 온갖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는 당시의 폐단의 근원과 사물의 실정을 아는 것과 같다.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폐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궁구하고, 사물의 실정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살펴본 뒤에 옛 법 중에서 지금에 맞는 것을 골라 시행해야 위험을 안전하게 하고 혼란을 다스릴 수 있다. 만약 폐단의 근원과 사물의 실정을 모른 채 단지 이것이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라고만 여기고 뒤섞어 시험하여 함께 사용한다면, 이는 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병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가 먼저 힘써야 할 바를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의사들이 대개 맥과 증상에 힘쓰지 않고 단지 탕약과 환약의 이름만 외우

다가, 병에 임해서는 그 병이 어느 장기 어느 경맥에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어림짐작으로 갑자기 의심되는 것을 시험해 본다면, 비록 병을 고치고자 해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신성하고 재주 있는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례(周禮)》에서 "수준 낮은 의사조차도 열명 중 하나 둘도 없다."고 한 것은 이 까닭일 것이다. 이는 진실로 의학을 배우는 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한 처방전을 만들어 의술을 가르치는 자들이 모두 맥과 증상, 탕약과 환약을 모두 한 책에서 섞어서 다루니, 그 뜻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기술을 둘로 나누어 급한 해결만 추구하는 폐단을 열어 준 것이다. 나는 이를 오래전부터 병폐라고 여겼다.

自夫丙戌以後, 先大王玉候彌, 予夙宵侍側, 帶不解者, 蓋十一年而無日不從事於醫藥. 于時就東醫寶鑑, 自身形精氣以至婦人小兒, 依其門類鈔錄其證論脈訣. 凡爲四卷, 取伊川詩用時還解壽斯民之語, 名之曰壽民妙詮. 既又念湯液諸方, 亦不可以終闕, 故隨即鈔錄爲別編五卷書. 既成而不復省, 近始追檢亂藁, 則所謂別編者已失, 而妙詮則在焉. 若又漫棄其工爲可惜, 乃令楷寫一通, 而叙其所以作之意如此. 雖出於古方, 無新奇可喜之說, 其於一醫者之心目而急乎其先務, 庶幾有少補焉耳. 雖然吾所謂壽民, 豈亶謂是哉. 今財竭民窮, 凋瘵滿目而莫有以醫之, 嗚呼安得起伊川而問之也.

병술년(1766, 영조42) 이후로, 선대왕(先大王)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셨고, 나는 아침저녁으로 곁에서 모시며 띠도 풀지 않고, 대략 1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의약에 종사하였다. 그때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참고하

여 신(身)·형(形)·정(精)·기(氣)부터 부인과·소아과에 이르기까지 그 문류(門類)에 따라 증상과 논설, 맥결(脈訣)을 초록(抄錄)하였다. 모두 4권으로 만들고, 이천(伊川)의 시에서 '때에 맞게 사용하여 백성의 수명을 연장한다.(用時還解壽斯民)'는 구절을 취하여 《수민묘전(壽民妙詮)》이라 이름 지었다. 이어서 〈탕액편(湯液編)〉의 여러 처방 또한 끝내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초록하여 별편(別編) 5권의 책을 만들었다. 완성한 뒤에는 다시 살펴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난잡한 초고를 다시 검토해보니 이른바 〈별편〉 5권은 이미 없어지고 《수민묘전》만이 남아 있었다. 만약 또 방치하고 버려둔다면 공들여 작업한 것이 아까울 것이므로 이에 깨끗이 1부를 베껴 쓰게 하고 그 책을 쓴 동기를 이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다. 비록 옛 처방에서 나온 것이라 새롭고 기이하여 기쁠 만한 말은 없지만 한 의원의 마음과 눈으로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을 다뤘으 아마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수민(壽民)이란 것이 어찌 단지 이것만을 말하겠는가. 지금 재정은 고갈되고 백성은 궁핍하며, 병든 자들이 눈에 가득한데도 고칠 길이 없으니, 아, 어떻게 하면 이천에게 가서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1. 序 : 규장각본에는 서문이 없으나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8권에 〈壽民妙詮序〉와 9권에 〈壽民妙詮九卷 寫本〉이 실려있어 내용을 위해 〈壽民妙詮九卷 寫本〉을 가져와 번역서에 실었다. 〈壽民妙詮九卷

寫本>에는 간략 서문과 정조가 친히 작성한 서문(親撰序)이 실려있다.



壽民妙詮 卷之二【雜病篇】¹

《수민요전》 권2【잡병편】

- 1.【雜病篇】: 본서는 현재 남아있는 권2 중 잡병편의 내용만 모아 번역한 것이다. [↩](#)

† 天地運氣.

천지운기¹

¹. 천지운기 : 천지의 운행과 기운의 변화.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체의 생리, 병리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

의사는 마땅히 천지 간의 운기(運氣)를 알아야 한다. 醫當識天地間運氣.

醫當識天地間運氣.

의사는 마땅히 천지 간의 운기(運氣)를 알아야 한다.

內經曰：不知年之所加，氣之盛衰，虛實之所起，不可以爲工矣。王冰以爲：天真氣運，尙未該通，人病之由，安能精達？卽古聖之深戒也。醫工之流，不可不知。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나이에 따른 변화, 기(氣)의 성쇠(盛衰), 허실(虛實)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의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왕빙(王冰)이 말하기를, "천진(天真)의 기(氣)의 운행을 아직 통달하지 못했는데 어찌 사람의 병의 근원을 정밀하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는 옛 성인의 깊은 경계이니, 의술을 하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五運之歲, 太過不及.

오운(五運)의 해에는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다.

甲丙戊庚壬爲陽年太¹過, 乙丁己辛癸爲陰年不及.

갑、병、무、경、임은 양년(陽年)으로 태과한 해이고, 을、정、기、신
、계는 음년(陰年)으로 불급한 해이다.²

1. 大 太 ※《동의보감》

2. 이 구절은 십간(十干)을 양년과 음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양년은 기운이 과도하고, 음년은 기운이 부족하다는 개념을 나타낸다.

六甲年¹敦阜之紀.

6개의 갑년은 돈부(敦阜)의 해다

歲土太過, 雨濕流行, 腎水受邪, 民病腹痛清厥, 意不樂, 肌肉痿, 足痿, 脚下痛, 中滿食減, 四肢不舉.

이 해에는 토(土)가 지나치게 많아 비가 많이 내려 습기가 유행하고, 신장(腎)의 수(水)가 사기(邪氣)를 받아 사람들이 복통과 사지 냉증을 앓게 되며, 기분이 좋지 않고 근육이 마르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며,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줄어들며, 사지를 들어올리기 힘들어진다.

1. 六甲年 : 갑(甲)이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갑자(甲子), 갑인(甲寅), 갑진(甲辰), 갑오(甲午), 갑신(甲申), 갑술(甲戌)년을 가리킨다. 이는 돈부지기(敦阜之紀)의 해로, 돈후하고 높은 기운(토운土運이 태과한 해)을 나타낸다 ←

六丙年¹, 漫衍之紀.

6개의 병년은 만연의 해다

歲水太過, 寒氣流行, 心火受邪, 民病身熱心燥, 陰厥, 上下中寒, 譫妄心痛, 喘咳寢汗.²

이 해에는 수기(水氣)가 지나치게 많아 한기(寒氣)가 유행하면, 심화(心火)가 사기(邪氣)를 받아 사람들이 몸에 열이 나고 가슴이 번조해지며 음결(陰厥)이 생긴다. 상하가 모두 냉해지고 헛소리를 하며 심통(心痛)이 있고 숨이 차며 기침을 하고 도한이 난다.

¹. 六丙年 : '병(丙)'이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병자(丙子), 병인(丙寅), 병진(丙辰), 병오(丙午), 병신(丙申), 병술(丙戌)년을 가리킨다. 이는 만연지기(漫衍之紀)의 해로, 널리 퍼지고 흘러가는 기운(수운水運이 태과한 해)을 나타낸다. <

². 이 구절은 수기(水氣)가 과도할 때 나타나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설명이다. <

六戊年¹, 赫曦之紀.

6개의 무년은 혁희의 해다

歲火²太過, 火暑流行, 肺金受邪, 民病瘡, 少氣咳喘, 血溢血泄, 身熱骨痛, 爲浸淫.

이 해에는 화운이 태과하여 화기가 넘쳐 흘러다니며 폐금³이 사기(邪氣)를 받아 사람들이 학질(瘡疾)에 걸리고 숨이 차며 기침을 하고 숨이 차며, 피가 눈·코·입·귀로 나오거나 대소변으로 나오고 몸에 열이 나며, 뼈가 아프고 침음창(浸淫瘡)이 생긴다.

1. 六戊年 : '무(戊)'가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자(戊子), 무인(戊寅), 무진(戊辰), 무오(戊午), 무신(戊申), 무술(戊戌)년을 가리킨다. 이는 혁희지기(赫曦之紀)의 해로, 밝게 빛나는 기운(화운火運이 태과한 해)을 나타낸다. <

2. 歲火 : 세화(歲火)는 오행설에 따른 연중 기후 변화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화(火)의 기운이 과도한 해를 뜻한다. <

3. 폐금 : 폐금(肺金)은 오행설에서 폐장(肺臟)이 금(金)에 해당한다는 개념을 나타낸다. <

6개의 무년은 혁희의 해다 六戊年, 赫曦之紀.



六庚年¹, 堅成之紀.

6개의 경년(庚年)은 견성(堅成)의 해다

歲金太過, 燥氣流行, 肝木受邪, 民病脅與小腹痛, 耳聾目赤, 胸脅痛引小腹, 尻陰股膝髀膕胫足皆痛.

이 해에는 금운이 태과하여 건조한 기운이 유행하여 간(肝)의 목(木)이 사기(邪氣)를 받게 되니, 사람들은 옆구리와 아랫배가 아프고, 귀가 멍멍하며 눈이 붉어지고,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면서 아랫배까지 당기며, 꼬리뼈와 음부, 허벅지, 무릎, 정강이, 발까지 모두 아픈게 된다.²

¹. 六庚年 : 육경년(六庚年)은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조합에서 '경(庚)'이 들어가는 여섯 번째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진(庚辰), 경오(庚午), 경신(庚申), 경술(庚戌), 경자(庚子), 경인(庚寅)년을 가리킨다.

←

². 금(金)이 과도할 때 목(木)에 해당하는 간(肝)이 영향을 받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

六壬¹年發生之紀.

6개의 임년은 발생의 해다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民病飧泄, 食減體重, 煩冤腸鳴, 脅痛支滿.

이 해에는 나무의 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하여 바람의 기운이 유행하면 비장(脾臟)의 토(土)가 사기(邪氣)를 받아 사람들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고 먹는 것이 줄며, 몸이 무겁고 답답하여 괴롭고, 장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옆구리에 통증이 있고 사지가 무겁게 느껴진다.

¹. 六壬 : '임(壬)'이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자(壬子), 임인(壬寅), 임진(壬辰), 임오(壬午), 임신(壬申), 임술(壬戌)년을 가리킨다. 이는 발생지기(發生之紀)의 해로, 만물이 생겨나고 발생하는 기운(목운木運이 태과한 해)을 나타낸다. ←

六乙年¹, 從革之紀.

6개의 을년(乙年)은 종혁(從革)²의 해다

歲金不及, 炎火盛行, 民病肩背贅重, 鼽嚏咳喘, 血便注下.

이 해에는 금운이 불급하여 뜨거운 불기운이 성하게 행하니, 사람들이 어깨와 등이 무겁고 답답한 병을 앓으며 콧물이 나고 재채기하며, 기침을 하고 숨이 차면서 피가 섞인 설사를 쏟아내게 된다.³

1. 六乙年 : '을(乙)'이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을축(乙丑), 을묘(乙卯), 을사(乙巳), 을미(乙未), 을유(乙酉), 을해(乙亥)년을 가리킨다. 이는 종혁지기(從革之紀)의 해로, 변화와 개혁을 따르는 기운(금운金運이 불급한 해)을 나타낸다. <

2. 종혁(從革) : 종혁(從革)은 주역(周易)의 64괘(卦) 중 하나로, 혁명이나 큰 변화를 의미한다. <

3. 금(金)은 오행에서 가을을 상징하는 요소로, 가을의 기운이 충분히 오지 않고 여름의 열기가 지속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을 묘사하고 있다. <

六丁年¹, 委和之紀.

6개의 정년은 위화의 해이다.

歲木不及, 燥乃盛行, 民病中滿, 肱脅小腹痛, 腸鳴溏泄.

이 해에는 나무의 기운이 부족하여 건조함이 성하게 되니 사람들은 속이 차고 겨드랑이와 옆구리 그리고 아랫배에 통증이 있고 장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묽은 설사를 한다.

1. 六丁年 : '정(丁)'이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축(丁丑), 정묘(丁卯), 정사(丁巳), 정미(丁未), 정유(丁酉), 정해(丁亥)년을 가리킨다. 이는 위화지기(委和之紀)의 해로, 부드럽고 조화로운 기운(목운木運이 불급한 해)을 나타낸다. ←

六己年¹, 卑監之紀.

6개의 기년(己年)은 비감(卑監)²의 해이다.

歲土不及, 風氣盛行, 民病飧泄霍亂, 體重腹痛, 筋骨繇, 併肌肉瞶痠, 善怒.

이 해에는 토기(土氣)가 부족하고 풍기(風氣)가 성하게 행하여, 사람들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급성 위장병에 걸리고, 몸이 무겁고 배가 아프며, 근골(筋骨)이 시큰거리고 근육이 떨리며 쑤시고, 쉽게 화를 내게 된다.

1. 六己年 : '기(己)'가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축(己丑), 기묘(己卯), 기사(己巳), 기미(己未), 기유(己酉), 기해(己亥)년을 가리킨다. 이는 비감지기(卑監之紀)의 해로, 낮고 습한 기운(화운火運이 불급한 해)을 나타낸다. <

2. 비감(卑監) : 토기(土氣)가 낮고 약한 상태를 나타내며, 그러한 상태를 살피야 함을 나타낸다 <

六辛年¹, 涸流之紀.

6개의 신년은 학류(涸流)²의 해이다.

歲水不及, 濕乃盛行, 民病腫滿, 身重濡泄, 足痿清厥, 脚下痛.

이 해에는 수운이 불급하여 습기가 성하게 되어 사람들이 부종(浮腫)과 복부팽만의 병에 걸리고 몸이 무겁고 설사를 하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싸늘하며 발바닥이 아프다.

1. 六辛年 : '신(辛)'이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축(辛丑), 신묘(辛卯), 신사(辛巳), 신미(辛未), 신유(辛酉), 신해(辛亥)년을 가리킨다. 이는 학류지기(涸流之紀)의 해로, 마르고 메마른 기운(수운水運이 불급한 해)을 나태낸다. ←

2. 학류(涸流) : 수기(水氣)가 부족하여 물이 마르고 흐름이 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

六癸年¹, 伏明之紀.

6개의 계년(癸年)은 복명(伏明)²의 해이다.

歲火不及, 寒乃盛行, 民病胸痛脅滿, 膺背肩胛兩臂內痛, 鬱冒, 心痛暴瘖.

이 해에는 화운이 불급하여 한기가 성해지면, 사람들은 가슴 통증이 생기고 옆구리가 답답하며, 가슴·등·어깨·견갑·양팔의 안쪽에 통증이 생기고, 울체되어 답답하며, 심장 통증이 있고,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¹. 六癸年 : '계(癸)'가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축(癸丑), 계묘(癸卯), 계사(癸巳), 계미(癸未), 계유(癸酉), 계해(癸亥)년을 가리킨다. 이는 복명지기(伏明之紀)의 해로, 빛이 숨어있는 기운(토운土運이 불급한 해)을 나타낸다. ←

². 복명(伏明) : 화기(火氣)가 부족하여 밝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

六十歲, 運氣主客及民病.

60년의 주기, 객기와 사람의 질병

子午之歲.

자오(子午)의 해.

少陰司天, 陽明在泉, 氣化運行先天.

소음(少陰)이 하늘을 주관하고 양명(陽明)이 땅에 있으니, 기후의 변화와 운행이 절기보다 앞서 운행한다.

丑未之歲.

축미(丑未)의 해.

太陰司天, 太陽在泉, 氣化運行後天.

태음(太陰)이 하늘을 주관하고, 태양(太陽)이 땅에 있으니, 기후의 변화와 운행이 절기보다 늦게 운행한다.

寅申之歲.

인신(寅申)의 해.

少陽司天, 厥陰在泉, 氣化運行先天.

소양(少陽)이 하늘을 주관하고 궐음(厥陰)이 땅에 있으니, 기후의 변화와 운행이 절기보다 앞서 운행한다.

卯酉之歲.

묘유(卯酉)의 해.

陽明司天, 少陰在泉, 氣化運行後天.

양명(陽明)이 하늘을 주관하고, 소음(少陰)이 땅에 있으니, 기후의 변화와 운행이 절기보다 늦게 운행한다.

辰戌之歲.

진술(辰戌)의 해.

太陽司天, 太陰在泉, 氣化運行先天.

태양(太陽)이 하늘을 주관하고, 태음(太陰)이 땅에 있으니, 기후의 변화와 운행이 절기보다 앞서 운행한다.

己¹

사해(巳亥)의 해.

厥陰司天, 少陽在泉, 氣化運行後天.

궐음(厥陰)이 하늘을 주관하고, 소양(少陽)이 땅에 있으니, 기후의 변화와 운행이 절기보다 늦게 운행한다.

1. 己 巳 ※문맥상



† 審病.

병의 진찰



神聖工巧.

신성한 의술과 교묘한 기술.

神聖工巧何謂也. 曰, 望而知之者, 望見其五色, 以知其病也. 聞而知之者, 聞其五音, 以別其病也. 問而知之者, 問其所欲五味, 以知其病所起所在也. 切脈而知之者, 診其寸口, 視其虛實, 以知其病在何藏府也.

신성한 의술과 교묘한 기술이란 무엇인가? 말하기를, '보아서 안다'는 것은 환자의 오색을 보고서 그 병을 안다는 것이다. '들어서 안다'는 것은 환자의 오음(五音)을 듣고서 그 병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물어서 안다'는 것은 환자가 바라는 오미(五味)를 알아서 그 병이 일어난 곳과 ー 있는 곳을 안다는 것이다. '맥을 짚어 안다'는 것은 촌구맥을 진찰하고 그 허실을 살펴서 그 병이 어느 장부(藏府)에 있는가를 안다는 것이다.¹

¹. 이 구절은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네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망문문절(望聞問切)'이라고 불리는 중국 전통 의학의 진단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明堂察色.

명당(明堂)¹에서 안색을 살핀다.

明堂者, 鼻也. 闕者, 眉間也. 庭者, 額也. 蕃者, 頰側也. 蔽者, 耳門也.

명당이라는 것은 코이고, 곁(闕)은 미간이다. 정(庭)은 이마를 말하고, 번(頰)은 뺨의 외측을 말하며, 폐(蔽)는 이문(耳門)을 말한다.

○額爲心之部, 鼻爲脾之部, 左頰肝之部, 右頰肺之部, 頤爲腎之部.

이마는 심(心)의 부위이고, 코는 비(脾)의 부위이며, 왼쪽 뺨은 간(肝)의 부위이고, 오른쪽 뺨은 폐(肺)의 부위이며, 턱은 신(腎)의 부위이다.

○五藏六府, 固盡有部, 視其五色, 黃赤爲熱, 白爲寒, 青黑爲痛, 此所謂視而可
見者也.

○오장육부는 본래 해당하는 부위가 모두 있다. 그 다섯 가지 색을 보면
황색·적색이면 열증이고, 백색이면 한증이며, 청색·흑색이면 통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¹. 명당(明堂) : 얼굴을 지칭하는 한의학 용어로, 이마부터 턱까지의 얼굴 전체를 의미한다. 각 부위가 오장육부와 대응한다고 보아 진단에 활용된다. ←

명당(明堂)에서 안색을 살핀다. 明堂察色.



五色占吉凶.

오색으로 예후를 본다.

夫精明五色者, 氣之華也. 赤欲如帛裹朱, 不欲如赭. 白欲如鵝羽, 不欲如鹽. 青欲如蒼璧之澤, 不欲如藍. 黃欲如羅裏雄黃, 不欲如黃土. 黑欲如重漆色, 不欲如地蒼. 註曰: 精明, 穴名也, 在明堂左右, 兩目內眥也. 五氣精華者, 上見爲五色, 變化於精明之間也.

정명(精明)의 오색(五色)은 기(氣)를 나타내는 빛깔이다. 적색은 비단으로 주사(朱砂)를 싼 것 같아야지 붉은 흙과 같아서는 안 된다. 백색은 거위의 깃털 같아야지 소금 같아서는 안 된다. 청색은 푸른 구슬처럼 빛이 나야지 쪽풀 같아서는 안 된다. 황색은 비단으로 웅황(雄黃)을 싼 것 같아야지 황토 같아서는 안 된다. 흑색은 옷칠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야지 암청색의 땅 같아서는 안 된다. 주(註)에 이르기를, '정명(精明)은 혈자리 이름으로, 명당(明堂)의 좌우에 있으며 두 눈의 안쪽 구석이다. 다섯 가지 기(氣)의 정화(精華)는 위로 드러나 다섯 가지 색이 되어 정명(精明) 사이에서 변화한다'고 하였다.

○五藏之氣, 色見青如草滋¹者死, 黃如枳實者死, 黑如炁者死, 赤如衄血者死, 白如枯骨者死, 此五色之見死也.

○오장의 기(氣)가 색으로 드러나는데, 검게 시든 풀같은 청색은 죽고, 지실(枳實) 같이 누런 빛일 때도 죽으며, 그을음 같이 검어도 죽고, 죽은 피 같이 붉어도 죽으며, 마른 뼈 같이 희어도 죽는다. 이것이 다섯 가지 색으로 죽음을 보는 것이다.²

○青如翠羽者生, 赤如鷄冠者生, 黃如蟹腹者生, 白如豕膏者生, 黑如烏羽者生, 此五色之見生也.

○물총새의 깃털과 같은 청색은 살고, 닭 벼슬 같은 적색도 살며, 게의 배 같은 황색도 살고, 돼지기름 같은 백색도 살며, 까마귀의 깃털과 같은 흑색도 산다. 이것이 다섯 가지 색으로 생(生)을 보는 것이다.

○生於心, 如以縞裹朱, 生於肺, 如以縞裹紅, 生於肝, 如以縞裹紺, 生於脾, 如以縞裹瓜萐實. 生於腎, 如以縞裹紫, 此五臟所生之外榮也.

○심(心)에서 파생된 색은 흰 비단으로 주사를 싼 듯하고, 폐에서 파생된 색은 흰 비단으로 홍색(紅色)을 싼 듯하며, 간에서 파생된 색은 흰 비단으로 감색(紺色)을 싼 듯하고, 비(脾)에서 파생된 색은 흰 비단으로 과루실을 싼 듯하며, 신(腎)에서 파생된 색은 흰 비단으로 자색(紫色)을 싼 듯하다. 이것이 오장에서 파생된 기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다.

1. 滋 ㄹ 茲 ※內經 ←

2. 오장(五藏)은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을 가리키며, 각각

오색으로 예후를 본다. 五色占吉凶.

청, 적, 황, 백, 흑의 색과 연관된다. ↩



內經病機.

체내 질병의 기전

諸風掉眩, 皆屬於肝. 諸寒收引, 皆屬於腎. 諸氣¹鬱, 皆屬於肺. 諸濕腫滿, 皆屬於脾. 諸痛痒癢, 皆屬於心.

모든 풍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현기증은 모두 간(肝)에 속한다. 모든 한(寒)으로 인한 수축과 당김은 모두 신(腎)에 속한다. 모든 기(氣)의 막힘과 울체는 모두 폐(肺)에 속한다. 모든 습(濕)으로 인한 부종과 팽만은 모두 비(脾)에 속한다. 모든 통증과 가려움, 종기는 모두 심(心)에 속한다.

¹. 賁 : 臍 ※《의학강목·오운육기》←

五臟者, 身之強.

오장(五臟)은 몸의 강건함의 근간이다.

五臟者, 身之強也. 頭者, 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背者胸中之府, 背曲肩隨, 胸將壞矣. 腰者腎之府, 轉腰不能, 腎將憊矣. 膝者筋之府, 屈伸不能, 行則僂俯, 筋將憊矣. 骨者髓之府, 不能久立, 行則振掉, 骨將憊矣. 得強則生, 失強則死.

오장(五臟)은 몸의 강건함의 근간이다. 머리는 정명(精明)의 집이다. 머리가 기울어지고 눈이 들어가면 정신(精神)이 나가려는 것이다. 등은 가슴〔胸中〕의 집이다.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면 가슴이 무너지려는 것이다. 허리는 신장(腎藏)의 집이다. 허리를 돌리지 못하는 것은 신장이 무너지려는 것이다. 무릎은 근(筋)의 집이다. 구부리고 펴는 것을 하지 못하고, 걸을 때면 몸이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면 근이 무너지려는 것이다. 골(骨)은 골수(骨髓)의 집이다.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걸어갈 때 몸을 흔드는 것은 골이 무너지려는 것이다. 오장이 강건함을 얻으면 살고, 강건함을 잃으면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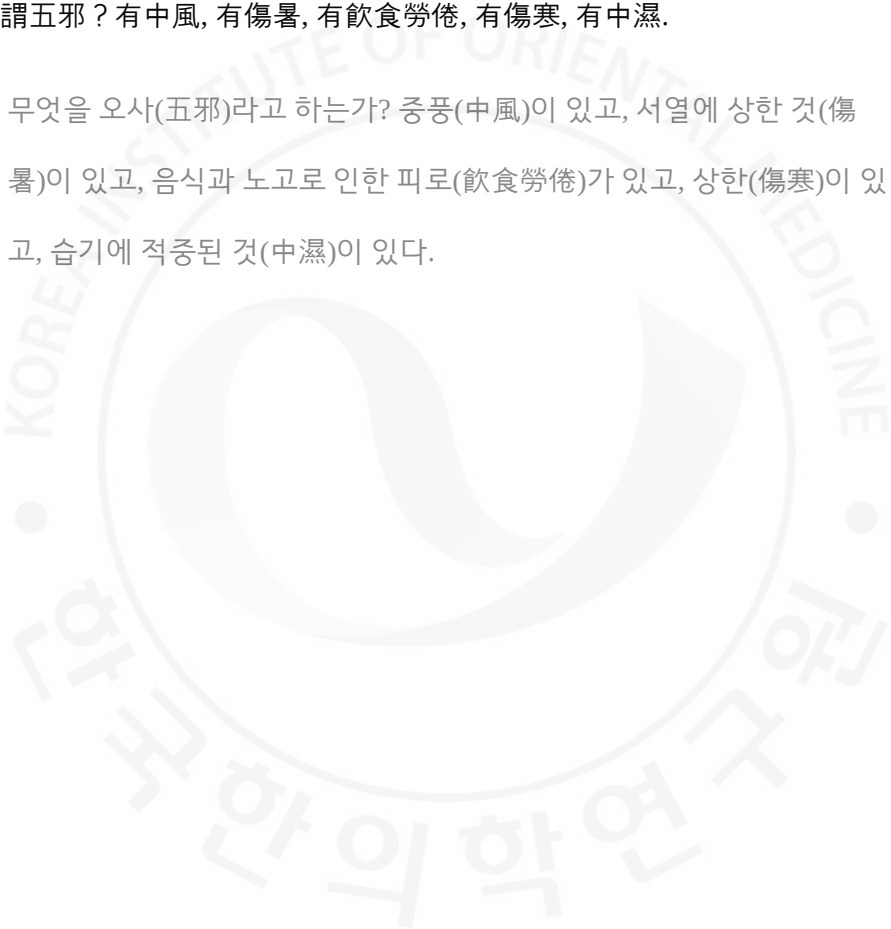
병에는 다섯 가지 사기(邪氣)가 있다. 病有五邪.

病有五邪.

병에는 다섯 가지 사기(邪氣)가 있다.

何謂五邪？有中風，有傷暑，有飲食勞倦，有傷寒，有中濕.

무엇을 오사(五邪)라고 하는가? 중풍(中風)이 있고, 서열에 상한 것(傷暑)이 있고, 음식과 노고로 인한 피로(飲食勞倦)가 있고, 상한(傷寒)이 있고, 습기에 적중된 것(中濕)이 있다.



五色、五臭、五味、五聲、五液.

오색¹、오취²、오미³、오성⁴、오액⁵

青色：入肝爲靑.

赤色：入心爲赤.

黃色：入脾爲黃.

白色：入肺爲白.

黑色：入腎爲黑.

청색：간에 들어가면 청색이 된다.

적색：심에 들어가면 적색이 된다.

황색：비에 들어가면 황색이 된다.

백색：폐에 들어가면 백색이 된다.

흑색：신에 들어가면 흑색이 된다.

臊臭：入肝爲臊.

焦臭：入心爲焦.

香臭：入脾爲香.

腥臭：入肺爲腥.

腐臭：入腎爲腐.

누린내 : 간에 들어가면 누린내가 된다.

탄내 : 자신에게 들어가면 탄내가 된다.

향내 : 비에 들어가면 향내가 된다.

비린내 : 폐에 들어가면 비린내가 된다.

썩은내 : 신에 들어가면 썩은내가 된다.

酸味 : 入肝爲酸.

苦味 : 入心爲苦.

甘味 : 入脾爲甘.

辛味 : 入肺爲辛.

鹹味 : 入腎爲鹹.

신맛 : 간에 들어가면 신맛이 된다.

쓴맛 : 심에 들어가면 쓴맛이 된다.

단맛 : 자신에게 들어가면 단맛이 된다.

매운맛 : 폐에 들어가면 매운맛이 된다.

짠맛 : 신에 들어가면 짠맛이 된다.

呼聲 : 入肝爲呼.

言聲 : 入心爲言.

歌聲 : 入脾爲歌.

哭聲 : 入肺爲哭.

呻聲 : 入腎爲呻.

호통치는 소리 : 간에 들어가면 호통치는 소리가 된다.

말소리 : 심에 들어가면 말소리가 된다.

노래 소리 : 비에 들어가면 노래 소리가 된다.

곡하는 소리 : 자신에게 들어가면 곡하는 소리가 된다.

신음 소리 : 신에 들어가면 신음 소리가 된다.

泣液 : 入肝爲泣.

汗液 : 入心爲汗.

涎液 : 入脾爲涎.

涕液 : 入肺爲涕.

唾液 : 入腎爲唾.

눈물 : 간에 들어가면 눈물이 된다.

땀 : 심에 들어가면 땀이 된다.

침 : 비에 들어가면 말간 침이 된다.

콧물 : 폐에 들어가면 콧물이 된다.

침 : 자신에게 들어가면 끈끈한 침이 된다.

1. 오색 :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 기본 색상을 의미한다. ←

2. 오취 : 비린 냄새(腥), 탄 냄새(焦), 향기로운 냄새(香), 비린 냄새(腐),

누린 냄새(臊)의 다섯 가지 기본 냄새를 의미한다. ←

3. 오미 : 신맛(酸), 쓴맛(苦), 단맛(甘), 매운맛(辛), 짠맛(鹹)의 다섯 가지 기본 맛을 의미한다. ←

4. 오성 :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의 다섯 가지 기본 음을 의미한다. ←

5. 오액 : 눈물(淚), 콧물(涕), 침(唾), 땀(汗), 침(津)의 다섯 가지 체액을 의미한다. ←

辨氣、血、痰、火

기、혈、담、화의 구분

氣證飲水, 血證不飲水.

기증에는 물을 마시고, 혈증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熱在上焦氣分則渴, 熱在下焦血分則不渴, 蓋血中有濕, 故不渴也, 熱在下焦多不渴.

○열이 상초의 기분(氣分)에 있으면 갈증이 나고, 열이 하초의 혈분(血分)에 있으면 갈증이 나지 않는다. 혈 속에 습이 있기 때문에 갈증이 없는 것이다. 열이 하초에 있으면 대부분 갈증이 없다.

○血之外證, 常以湯水漱口.

○혈의 외증(外證)에는 늘 끓인 물로 입을 양치한다.

○氣病則麻, 血病則痛.

○기가 병들면 마비되고 혈이 병들면 아프다.

○血之爲病, 上焦瘀血, 小便必難. 下焦瘀血, 小便必自利.

○혈에 병이 들어 상초에 어혈이 있으면 반드시 소변을 보기가 어렵고, 하초에 어혈이 있으면 반드시 소변이 잘 나온다.

○一切血證, 曰輕夜重, 一切痰證, 食少, 肌色如故. 一切火證, 性急潮盛, 一切水證, 脅硬, 心下怔忡.

○모든 혈증은 낮에는 가벼우나 밤에는 심해진다. 모든 담증은 적게 먹어도 살색은 예전과 같다. 모든 화증은 진행이 빠르고 조열이 심하다. 모든 수증은 옆구리가 단단하고 명치가 두근거린다

○無陽則厥, 無陰則嘔.

○몸에 양(陽)이 없으면 싸늘해지고, 음(陰)이 없으면 구역질이 난다.¹

¹. 음양의 균형이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요함을 나타낸 것이다

凡病晝夜輕重

밤낮에 따른 병의 경중

凡病晝則增劇, 夜則安靜, 是陽病有餘, 乃氣病而血不病也, 夜則增劇, 晝則安靜, 是陰病有餘, 乃血病而氣不病也.

병이 낮에는 심해지고 밤에는 안정되는 것은 양(陽)에 병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에 병이 들고 혈에는 병이 들지 않은 것이다. 밤에는 심해지고 낮에는 안정되는 것은 음(陰)에 병이 있는 것이다. 이는 혈에 병이 들고 기에는 병이 들지 않은 것이다.¹

○晝則發熱, 夜則安靜,²是陰血自旺於陰分也.

○낮에는 열이 나고 밤에는 안정되는 것은 양기가 양분에서 왕성해진 것이다. 밤에는 오한이 있고 낮에는 안정되는 것은 음혈이 음분에서 왕성해진 것이다.

¹. 낮과 밤에 따른 양기(陽氣)와 음혈(陰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

². 是陽氣自旺於陽分也. 夜則惡寒, 晝則安靜, ※《동의보감》, 그대로 번역하면 이론이 섞이게 되므로 《동의보감》에서 보입해 번역하였다. ←



病愈日時

병이 낫는 날짜와 시간

凡病欲知何時得, 何時愈, 答曰, 假令夜半得病, 明日日中愈, 日中得病, 夜半愈, 何以言之, 日中得病夜半愈者, 以陽得陰則解也, 夜半得病日中愈者, 以陰得陽則解也.

대체로 병은 언제 생겨 언제 낫는가? 답하기를, "한밤중에 병이 생기면 다음날 한낮에 낫고, 한낮에 병이 생기면 한밤중에 낫는다. 왜 그러한가? 한낮에 생긴 병이 한밤중에 낫는 것은 양이 음을 얻으면 풀리기 때문이고, 한밤중에 얻은 병이 한낮에 낫는 것은 음이 양을 얻으면 풀리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五實五虛¹

다섯가지 실증과 다섯가지 허증

黃帝曰, 願聞五實五虛, 岐伯曰, 脈盛皮熱, 腹脹, 前後不通, 悶瞖, 此謂五實, 脈細皮寒, 氣少, 泄利前後, 飲食不入, 此謂五虛, 帝曰, 其時有生者, 何也, 岐伯曰, 漿粥入胃, 泄注止, 則虛者活, 身汗得後利, 則實者活, 此其候也.

황제가 말하기를, "오실(五實)과 오허(五虛)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기백이, "맥박이 충실하고 피부가 뜨거우며, 배가 팽만하고, 대소변이 통하지 않으며, 답답하고 어지러운 것, 이를 오실이라고 합니다. 맥박이 가늘고 피부가 차며, 기운이 적고, 대소변이 설사하듯 나오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이를 오허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이런 때에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죽이나 미음이 위(胃)에 들어가고 설사가 멎으면 허한 사람도 살 수 있고, 몸에서 땀이 나고 대변을 보게 되면 실한 사람도 살 수 있으니 이것이고 징후입니다"라고 하였다.

¹. 五實五虛 : 실증은 체내에 사기(邪氣)가 가득 찬 상태를, 허증은 정기(正氣)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



陰陽生病

음양에 따라 생기는 병

內經曰, 夫邪之生也, 或生於陰, 或生於陽, 其生於陽者, 得之風雨寒暑. 其生於陰者, 得之飲食居處, 陰陽喜怒.

《내경》에, "사기(邪氣)가 생기는 것은 음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양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양에서 비롯되는 것은 풍우(風雨)·한서(寒暑)에 의한 것이고, 음에서 비롯되는 것은 음식, 거처, 성생활〔陰陽〕, 칠정〔喜怒〕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陰陽虛盛

음양의 허실(虛實)과 성쇠(盛衰)

內經曰,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

《내경》에, "양이 허하면 겉이 차고, 음이 허하면 속에서 열이 난다. 양이 성하면 겉에서 열이 나고, 음이 성하면 속이 차다"고 하였다.

○陽虛生外寒者, 陽受氣於上焦, 以溫皮膚分肉之間, 今寒氣在外, 則上焦不通, 上焦不通, 則寒氣獨留於外, 故寒慄.

○양이 허하면 외부에 한기가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양기는 상초에서 기를 받아 피부와 근육 사이를 따뜻하게 한다. 그런데 한기가 외부에 있으면 상초가 통하지 않게 되고 상초가 통하지 않으면 한기만 외부에 머물게 되어 오한이 생긴다.

○陰虛生內熱者,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

○음허(陰虛)로 인해 내열(內熱)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노고로 인해 피곤해지고 형기(形氣)가 쇠약해지며 곡기가 충분하지 못하면, 상초가 순행하지 않고 하초가 통하지 않으며 위기(胃氣)가 열을 띠게 되어 열기가 흉중(胸中)을 훈증하기 때문에 내열이 생기는 것이다.

○陽盛生外熱者, 上焦不通利, 則皮膚緻密, 腠理閉塞, 玄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

○양이 성하면 겉에서 열이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초가 잘 통하지 못하면 피부가 치밀해져 주리가 막히고 땀구멍이 통하지 못하여 위기(衛氣)가 흠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겉에서 열이 나는 것이다.



內傷精神

안으로 정신이 손상되는 것

內經曰, 故貴脫勢, 雖不中邪, 精神內傷, 身必敗亡, 始富後貧, 雖不傷邪, 皮焦筋屈, 痿痺爲攣, 暴樂暴苦, 始樂後苦, 皆傷精氣, 精氣竭絕, 形氣毀¹沮.

《내경》에, "귀한 지위에 있다가 권세를 잃으면 비록 사기(邪氣)에 적중되지 않더라도 정신이 내적으로 손상되어 몸이 반드시 망가지게 된다. 처음에 부유하다가 나중에 가난해지면 비록 사기(邪氣)에 상하지 않더라도 피부가 마르고 근이 오그라들며 위벽(痿痺)으로 경련이 인다. 갑자기 기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괴로운일이 생기고, 처음에는 즐겁게 지내다가 나중에 괴로워지는 것은 모두 정기를 손상시키니, 정기가 고갈되어 끊어지면 형체가 무너지고 망가진다."라고 하였다.

1. 氣毀 : 體毀 ※《동의보감》↩

寒熱傷形氣

한랭과 열기가 형체와 기운을 손상시킨다.

內經曰, 寒傷形, 熱傷氣, 氣傷痛, 形傷腫, 故先痛而後腫者, 氣傷形也, 先腫而後痛者, 形傷氣也, 註曰, 氣傷則熱結於肉分, 故痛, 形傷則寒薄於皮膚, 故腫也.

《내경》에, "한(寒)은 형체를 상하게 하고, 열(熱)은 기운을 상하게 한다. 기가 손상되면 아프고, 형이 손상되면 붓는다. 그러므로 아픈 뒤에 붓는 것은 기가 형을 상하게 한 것이고, 붓고 나서 아픈 것은 형이 기를 상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註)에, "기가 상하면 열이 기육에 울결되기 때문에 아프고, 형이 상하면 한기가 피부와 주리를 치받기 때문에 붓는다"고 하였다.

求屬法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법

黃帝曰, 有病熱者, 寒之而熱. 有病寒者, 熱之而寒, 二者皆在, 新病復起, 奈何? 岐伯對曰, 諸寒之而熱者取之陰, 熱之而寒者取之陽, 所謂求其屬也, 註曰, 言益火之源, 以消陰翳, 壯水之主以鎮陽光, 故曰求其屬也.

황제가, "열병에 한(寒)약을 써도 열(熱)하고, 한병에 열(熱)약을 써도 한(寒)하며, 한열이 모두 있는데 새로운 병이 다시 생기는 것은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차게 하여도 열이 날 때는 음을 보하고, 뜨겁게 하여도 추울 때는 양을 보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 근본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주(註)에, "화의 근원을 보하여 음예(陰翳)를 없애고, 수의 주인을 든든히 하여 양광(陽光)을 누르므로 '병의 근본을 치료한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療病式

병을 치료하는 법

欲療病, 先察其源, 先候病機, 五藏未虛, 六府未竭, 血脈未亂, 精神未散, 服藥必活, 若病已成, 可得半愈. 病勢已過, 命將難痊.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병의 근원을 살피고, 먼저 병기(病機)를 살펴야 한다. 오장이 허하지 않고 육부의 기가 다하지 않았으며, 혈액이 어지럽지 않고 정과 신(神)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는 약을 먹으면 반드시 살 수 있다. 병이 자리잡은 뒤에라도 절반 정도는 살릴 수 있지만, 병세가 이미 깊어졌으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다.

三不治六不治

세가지 고칠수 없는 경우와 여섯가지 고칠수 없는 경우

倉公有言曰, 病不肯服藥, 一不治¹也. 信巫不信醫, 二不治²也. 輕身薄命, 不能將慎, 三不治³也.

창공(倉公)⁴이, "병이 들었는데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치료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무당을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치료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몸을 가볍게 여기고 목숨을 우습게 보아 조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치료되지 못하는 이유이다"라고 하였다.

○扁鵲曰, 病有六不治, 驕恣不倫於理, 一不治也. 輕身重財, 二不治也. 衣食不能適, 三不治也. 陰陽并, 藏氣不定, 四不治也. 形羸不能服藥, 五不治也. 信巫不信醫, 六不治也.

○편작(扁鵲)이, "병에 치료할 수 없는 6가지 경우가 있다. 교만하고 방자하여 이치에 따르지 않는 것이 치료할 수 없는 첫 번째 경우다. 몸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을 중요시하는 것이 치료할 수 없는 두 번째 경우다. 먹고 입는 것을 챙기지 않는 것이 치료할 수 없는 세 번째 경우다. 음양이 뒤섞이고 장기(藏氣)가 안정되지 않는 것이 치료할 수 없는 네 번째 경우다.

형체가 마르고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치료할 수 없는 다섯 번째 경우다. 무당을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것이 치료할 수 없는 여섯 번째 경우다"라고 하였다.

1. 不治 : 死 ※《동의보감》↩

2. 不治 : 死 ※《동의보감》↩

3. 不治 : 死 ※《동의보감》↩

4. 창공(倉公) : 순우의(淳于意)로 서한(西漢)의 저명한 의사였다. 창공(倉公) 또는 태창공(太倉公)이라고 한다. ↩

醫貴三世

3대를 내려온 의사를 귀하게 여긴다

論語云,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明此二法, 不可以權飾忘造¹, 所以醫不三世, 不服其藥, 九折臂者, 乃成良醫, 蓋謂學功須深故也.

《논어》에, "사람이 항심(恒心)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2가지 일은 임의로 꾸미거나 함부로 지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3대를 내려온 의사가 아니면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고, '9번 팔이 부러져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의술을 깊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1. 忘造 ㄹ 妄造 ※《동의보감》↩

四時生病

사계절에 따라 생기는 병

靈樞曰, 冬傷於寒, 春生痺熱. 春傷於風, 夏生飧泄腸澼. 夏傷於暑, 秋生痄瘡.

秋傷於濕, 冬生咳嗽.

《영추》에, "겨울에 한기에 상하면 봄에 온열병이 생긴다. 봄에 풍사(風邪)에 상하면 여름에 손설(飧泄), 장벽(腸澼)이 생긴다. 여름에 서사(暑邪)에 상하면 가을에 학질이 생긴다. 가을에 습사에 상하면 겨울에 기침을 한다"고 하였다.

○脈盛身寒, 得之傷寒, 脈虛身熱, 得之傷暑.

○맥이 성(盛)하고 몸이 차면 상한에 의한 것이고, 맥이 허하고 몸에 열이 있으면 상서(傷暑)로 인한 것이다.

百病始生

온갖 병의 발생

靈樞曰, 夫百病之始生也, 皆生風雨寒暑清濕喜怒, 喜怒不節, 則傷藏, 風雨則傷上, 清濕則傷下, 藏傷則病起於陰, 清濕襲虛, 則病起於下, 風雨襲虛, 則病起於上.

《영추》에, "온갖 병이 처음 생길 때는 모두 풍우(風雨), 한서(寒暑), 청습(淸濕), 희노(喜怒)에서 생긴다. 희노에 절도가 없으면 오장을 상하고, 풍우는 상부를 상하며, 청습은 하부를 상한다. 오장이 상하면 병이 음(陰)에서 일어난다. 청습이 허한 틈을 타고 침입하면 병이 하부에서 생긴다. 풍우가 허한 틈을 타고 침입하면 병이 상부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五邪中人, 各有法度, 風中於前, 寒中於後, 霧傷於上, 濕傷於下, 風令脈浮, 寒令脈急, 霧傷皮膚, 濕流關節, 食傷脾胃, 極寒傷經, 極熱傷絡.

○오사(五邪)가 사람에게 침입할 때는 각각 법도가 있다. 풍사는 앞으로 침입하고, 한기는 뒤로 침입한다. 안개는 상부를 상하게 하고, 습사는 하부를 상하게 한다. 풍사는 맥을 부(浮)하게 하고, 한기는 맥을 급(急)하게 한다. 안개는 피부와 주리를 상하게 하고, 습사는 관절로 가며, 음식은 비위를 상하게 한다. 심한 한기는 경맥을 상하게 하고, 심한 열사는 낙맥을 상하게 한다.



百病朝慧夕加

모든 병은 아침에 가볍고 밤에 심해진다

黃帝問曰, 百病朝慧晝安, 夕加夜甚, 何也? 岐伯對曰, 朝則人氣始生, 衛氣始行, 故朝慧日中人氣長, 長則勝邪, 故安, 夕則人氣始衰, 邪氣始生, 故加, 夜半人氣入藏, 邪氣獨居於身, 故甚也.

황제가, "모든 질병이 아침에는 가볍고 낮에는 안정되며, 저녁에는 더해지고 밤에는 심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아침에는 사람의 양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위기(衛氣)가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쾌합니다. 낮에는 사람의 양기가 자랍니다. 양기가 자라면 사기(邪氣)를 이기기 때문에 안정됩니다. 저녁에는 사람의 양기가 쇠하기 시작하고 사기(邪氣)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병이 더해집니다. 밤중에는 사람의 양기가 오장으로 들어가 사기(邪氣)만 신체에 남아 있기 때문에 병이 심해집니다"라고 하였다.

反常爲病

정상에 어긋난 것이 병이다

內經曰, 氣實形實, 氣虛形虛, 此其常也, 反此者病.

《내경》에, "기가 실하면 형(形)도 실하고, 기가 허하면 형(形)도 허한 것이 정상이다. 이것과 반대이면 병이다"라고 하였다.

○穀盛氣盛, 穀虛氣虛, 此其常也, 反此者病.

○곡기가 왕성하면 기도 왕성하고, 곡기가 허하면 기도 허한 것이 정상이다. 이것과 반대이면 병이다.

○脈實血實, 脈虛血虛, 此其常也, 反此者病.

○맥이 실하면 혈도 실하고, 맥이 허하면 혈도 허한 것이 정상이다. 이것과 반대이면 병이다.

○氣虛身熱, 此謂反也, 穀入多而氣少, 此謂反也, 穀不入而氣多, 此謂反也.

○기허한데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어긋난 것이다. 수곡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가 적은 것도 어긋난 것이다. 수곡은 들어오지 않는데 기가 많은 것도 어긋난 것이다. 맥은 왕성한데 혈이 적은 것도 어긋난 것이다. 맥은 적은데 혈이 많은 것도 어긋난 것이다.



肥瘦辨病候

살찌고 마른 것으로 병을 구분한다

靈樞曰, 肥而澤者, 血氣有餘. 肥而不澤者, 氣有餘, 血不足, 瘦而無澤者, 血氣俱不足, 審察其形氣有餘不足而調之, 可以知逆順矣.

《영추》에, "살찌고 윤기가 있는 사람은 혈·기에 여유가 있다. 살쪼었지만 윤기가 없는 사람은 기는 여유가 있지만 혈은 부족하다. 마르고 윤기가 없는 사람은 혈·기가 모두 부족하다. 그 형(形)과 기가 여유로운지 부족한지를 잘 살펴서 조리한다면 병의 역(逆)과 순(順)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人黑瘦者易治, 肥大肉厚赤白者難愈, 黑人耐風濕, 赤白者不耐風濕, 瘦人肉硬, 肥人肉軟, 肉軟則受病難愈.

○검고 마른 사람은 치료하기 쉽고, 비대하여 살이 많고 붉거나 흰 사람은 치료하기 어렵다. 검은 사람은 풍습(風濕)을 견디지만, 붉거나 흰 사람은 풍습을 견디지 못한다. 마른 사람은 살이 단단하고, 살쪼은 사람은 살이 무르다. 살이 무르면 병들었을 때 치료하기 어렵다.

邪精虛實

사기와 정기에 의한 허실

內經曰, 邪之所湊, 其氣必虛, 許學士云, 留而不去, 其病則實.

《내경》에, "사기(邪氣)가 모여드는 곳은 그 기(氣)가 반드시 허하다"고 하였다. 허학사가, "사기(邪氣)가 제거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병은 실해진단다"고 하였다.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사기(邪氣)가 왕성한 것을 실증이라 하고, 정기(精氣)가 빠진 것을 허증이라고 한다. [《내경》]

○重實重虛者, 言大熱病, 氣熱脈滿, 是謂重實也, 脈虛氣虛尺虛, 是謂重虛也.

○중실(重實), 중허(重虛)라는 것은 열이 심한 병을 말한다. 기에 열이 심하고 맥이 그득한 것을 중실이라고 하고, 맥이 허하고, 기가 허하고, 척부가 허한 것을 중허라고 한다. [《내경》]

三虛三實

삼허·삼실

人有三虛三實, 何謂也. 然有脈之虛實, 有病之虛實, 有診之虛實, 脈之虛實者, 濡者爲虛, 緊牢者爲實, 病之虛實者, 出者爲虛, 入者爲實, 言者爲虛, 不言者爲實, 緩者爲虛, 急者爲實, 診之虛實者, 濡者爲虛, 牢者爲實, 痒者爲虛, 痛者爲實, 外痛內快, 爲外實內虛, 內痛外快爲內實外虛.

사람에게 삼허, 삼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맥에 허실이 있고, 병에 허실이 있고, 증에 허실이 있다는 것이다. 맥의 허실의 경우 유(濡)한 것은 허한 것이고, 뇌긴(牢緊)한 것은 실한 것이다. 병의 허실의 경우 정기(精氣)가 나가는 것이 허한 것이고, 사기(邪氣)가 들어오는 것이 실한 것이다. 말하는 것은 허한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실한 것이다. 병이 천천히 진행되면 허한 것이고, 급한 것은 실한 것이다. 증의 허실의 경우 눌러 보아 부드러운 것은 허한 것이고, 단단한 것은 실한 것이다. 가려운 것은 허한 것이고, 아픈 것은 실한 것이다. 겉은 아프지만 속은 편안한 것이 외실내허이고, 속은 아프지만 겉은 편안한 것이 내실외허이다.

脈從病反

맥은 순응하는데 병증이 상반되는 경우

黃帝曰, 脈從而病反者何如, 岐伯曰, 脈至而從, 按之不鼓, 諸陽皆然, 帝曰, 諸陰之反何如. 岐伯曰, 脈至而從, 按之鼓甚而盛也, 註曰, 病熱而脈數, 按之不鼓動, 乃寒盛格陽而致之, 非熱也, 形證皆寒, 按之而脈氣鼓擊於指下而盛, 此爲熱盛拒陰而生病, 非寒也.

황제가, "맥은 순응하는데 병증이 상반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맥은 순응하지만 눌러보면 뛰지 않는 것이니 모든 양병이 그러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모든 음병에서 상반은 어떠합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맥은 순응하지만 눌러 보면 심하게 뛰고 왕성합니다"라고 하였다. 주(註)에, "열병에 맥이 삭(數)하지만 눌러 보면 뛰지 않는 것은 한성격양(寒盛格陽)으로 인한 것이지 열증이 아니다. 또, 형체의 증상이 모두 한(寒)하지만 눌러 보면 맥의 기운이 손가락을 세게 치면서 왕성하게 뛰는 것은 열성거음(熱盛拒陰)으로 병이 든 것이지 한증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標本相反

표본의 상반

六氣之病, 標本相反者, 惟太陽少陰之病爲最, 蓋太陽標陽而本寒, 少陰標陰而本熱, 按之不鼓, 爲寒盛格陽者, 太陽寒水之本, 與標相反也, 按之鼓甚, 爲熱甚拒陰者, 少陰君火之本, 與標相反也, 不知相反者, 逆標氣之陰陽而正治, 則順本氣之寒熱而病加. 知相反者, 順標氣之陰陽而反治, 則逆本氣之寒熱而病愈矣.

육기로 인한 병에서 표본(標本)이 상반되는 것은 태양병과 소음병에서 제일 심하다. 태양의 경우 표는 양이고 본은 한이며, 소음의 경우 표는 음이고 본은 열이다. 맥이 눌러서 고동하지 않는 것은 한이 성하여 양을 쫓아내는 것(寒盛格陽)인데, 태양한수의 표와 본이 상반된 것이다. 눌러서 심하게 고동하는 것은 열이 심하여 음을 밀어내는 것(熱甚拒陰)인데, 소음군화의 표와 본이 상반된 것이다. 상반을 알지 못하고 표기(標氣)의 음양을 거슬러 정치(正治)법을 쓰면 본기(本氣)의 한열에 순응하여 병이 심해진다. 상반을 알아 표기의 음양을 따라 반치법을 쓰면 본기의 한열을 거슬러서 병이 낫는다.



惡寒惡熱

오한, 오열

發熱惡寒者, 發於陽, 無熱惡寒者, 發於陰.

발열오한은 양에서 생긴 것이고, 무열오한은 음에서 생긴 것이다.¹

○惡寒非寒, 明是熱證, 惡熱非熱, 明是虛證.

○오한은 몸이 차지 않으면 열증이 분명하고, 오열은 열이 나지 않으면 허증이 분명하다.

¹. 증상의 양상에 따라 병의 원인을 음양으로 구별하는 진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凡病辨有餘不足

모든 병은 여유와 부족을 구별해야 한다

凡病來潮作之時, 病氣精神增添者, 是爲病氣有餘, 乃邪氣勝也, 急瀉之, 以寒涼酸苦之劑.

병이 조수처럼 밀려와 발작할 때 병의 기운이 심해지고 정신이 밝아지면 이는 병의 기운이 유여(有餘)한 것이니 사기(邪氣)가 성한 것이다. 급히 차고 시고 쓴 약으로 사(瀉)해야 한다.

○若病來潮作之時, 神氣困弱者, 爲病氣不足, 乃眞氣不足也, 急補之以辛甘溫熱之劑.

○병이 조수처럼 밀려와 발작할 때 신기(神氣)가 피곤하고 약한 것은 병의 기운이 부족한 것이니 진기가 부족한 것이다. 급히 맵고 달고 뜨거운 약으로 보해야 한다.

○如病人形氣不足, 病來潮作之時, 病氣亦不足, 此乃陰陽俱不足也.

○환자가 형(形)과 기가 부족하면 병이 조수처럼 밀려와 발작할 때 병의 기운도 부족하니, 이것은 음양이 모두 부족한 것이다.

○夫氣謂口鼻中氣息也, 形謂皮肉筋骨血脈也, 形勝者爲有餘, 消瘦者爲不足也, 氣者, 審口鼻中氣, 勞役如故, 爲氣有餘也, 若喘息氣促氣短, 或不足以息者, 爲不足也, 故曰形氣也.

○기(氣)는 입과 코로 쉬는 숨을 말하고 형(形)은 피, 육, 근, 골, 혈액을 말한다. 형(形)이 성한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형이 마른 것은 부족한 것이다. 기는 입과 코의 숨을 살펴보아 일을 많이 한 뒤에도 숨결이 평소와 같으면 여유가 있는 것이고, 숨이 차고 급하며 숨이 짧거나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이다. 이것을 형기(形氣)라고 한다.

凡病有形無形

병에 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靈樞曰, 有形而不痛者, 陽之類也, 無形而痛者, 陰之類也, 無形而痛者, 陽完而陰傷之也, 急治其陰, 無攻其陽, 有形而不痛者, 其陰完而陽傷之也, 急治其陽, 無攻其陰, 陰陽俱動, 乍有形, 乍無形, 加以煩心, 命曰陰勝其陽, 此謂不表不裏, 其形不久也.

《영추》에, "형(形)에는 있으나 통증이 없는 것은 양병에 속하고, 형(形)에는 없으나 통증이 있는 것은 음병에 속한다. 형(形)은 없으나 통증이 있는 것은 양은 온전하지만 음이 상한 것이므로 급히 음을 치료해야지 양을 쳐서는 안 된다. 형(形)은 있으나 통증이 없는 것은 음은 온전하지만 양이 상한 것이므로 급히 양을 치료해야지 음을 쳐서는 안 된다. 음양이 모두 동하여 형(形)에 나타났다가 없다가 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증상이 더해지는 것을 '음이 양을 이겼다(陰勝其陽)'고 한다. 이것은 표병(表病)도 아니고 이병(裏病)도 아닌 것을 말하니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였다.

三焦不歸

삼초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寸口脈微而澹, 微者, 衛氣不行, 澹者, 榮氣不逮榮衛不能相將三焦無所仰身體痺不仁榮氣不足則煩疼口難言衛氣虛則惡寒, 數欠, 三焦不歸其部上焦不歸者噫而吞酢中焦不歸者不能消穀引食下焦不歸者則遺尿

구맥이 미(微)·색(澹)할 때 미는 위기(衛氣)가 운행되지 못하는 것이고, 색은 영기(榮氣)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영위가 서로 돕지 못하면 삼초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몸이 저리고 감각이 없게 된다. 영기가 부족하면 답답하고 아프며 말을 잘 못한다. 위기가 허하면 오한이 있고 자주 하품한다. 삼초가 그 부(部)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상초가 돌아가지 못하면 트림하고 신물을 삼키며, 중초가 돌아가지 못하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여 밥을 찾지 않고, 하초가 돌아가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온다.

男女病因

남녀의 병인

凡病男子必審房勞女人先問經孕¹.

모든 병에 남자는 반드시 성생활을 살피고, 여자는 먼저 월경과 임신을 물어야 한다.²

¹. 經孕 : 경(經)은 월경을, 잉(孕)은 임신을 뜻한다. 여성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월경과 임신 여부가 중요한 지표가 됨을 나타낸다. <↩>

². : 《동의보감(東醫寶鑑)》의 <내경편(內景篇)> 중 신형(身形) 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 진단 시 남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

升降失常爲病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하면 병이 된다

凡頭面上病, 皆百邪上攻¹, 胸膈間病, 皆百邪上衝, 腸胃間病, 皆百邪下流而傳入, 不然則血氣失升降之常, 陽當升而不升, 陰當降而不降, 識病機括², 盡於此矣.

머리와 얼굴의 병은 모두 사기(邪氣)가 상부를 쳐서 온 것이다. 흉격 사이에 있는 병은 모두 사기(邪氣)가 치고 올라온 것이다. 장위(腸胃) 사이의 병은 모두 사기(邪氣)가 아래로 흘러 전입된 것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혈기가 정상적인 승강을 상실하여 양은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음은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여 생긴 것이다. 병을 아는 관건은 이것이 전부이다.

○手之三陽, 從手走頭, 足之三陽, 從頭走足, 是高能接下也. 足之三陰, 從足走腹, 手之三陰, 從腹走手, 是下能趨上也. 故上下升降而爲和. 易曰, 天道下濟而光明, 地道卑而上行. 難經曰, 氣主煦³之, 升也, 血主濡之, 潤也. 夫唱則婦隨, 血隨氣而上行. 氣也者, 寄于辛, 用于寅, 平朝始從中焦注, 循天之紀, 左旋至丑而終, 晝夜通行五十度, 周流八百一十丈.

○수삼양경은 손에서 머리로 가고, 족삼양경은 머리에서 발로 가니 이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접할수 있다. 족삼음경은 발에서 배로 가고, 수삼음경은 배에서 손으로 가니 이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상하로 승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역》에, "천도(天道)는 아래로 내려와 밝게 빛나고, 지도(地道)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하였다. 《난경》에, "기는 몸의 온기를 주관한다."고 하였으니 상승시킨다는 뜻이고, "혈은 몸의 수분을 주관한다."고 하였으니 윤택하게 한다는 뜻이다.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혈은 기를 따라 올라간다. 기라는 것은 신(辛)에 기생하여 있으면서 인시(寅時)에 작용하여 새벽에 중초에서 시작하여 하늘의 법칙을 따라 왼쪽으로 돌다가 축시(丑時)에 이르러 끝나는데, 밤낮으로 50번을 돌아서 810장(丈)을 돈다.

1. 功 𢶏 攻 ※《동의보감》↩

2. 括 : 栝 ※《동의보감》초간본

括 ※남산당본 ↩

3. 照 : 煦 ※《동의보감》↩

辨陰陽二證

음증、양증의 구분법

凡病陰證則身靜重, 語無聲, 氣難布息, 目睛不了了, 鼻中呼不出, 吸不入, 往來口與鼻中氣冷, 水漿不入, 大小便不禁, 面上惡寒有如刀刮.

모든 병의 음증은 몸이 무거워 움직이지 않고 말하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숨쉬기가 어렵다. 눈동자가 또렷하지 않고, 코로 숨을 내쉬어도 나가지 않고 들이마셔도 들어오지 않으며, 코와 입을 드나드는 공기가 차다. 물을 넘기지 못하고 대소변을 참지 못하며, 얼굴에 칼로 에는 듯한 오한이 있다. [《동원》]

○陽證則身動輕, 語有聲, 目睛了了, 鼻中呼吸出入能往而能來, 口與鼻中氣皆然.

○양증은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말을 하면 목소리가 울리며 눈동자가 또렷하다. 코로 숨을 잘 쉬어 들숨 날숨이 원활하며, 입이나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모두 그러하다.

○凡病人開目喜見人者屬陽也, 閉目不欲見人者屬陰也.

○환자가 눈을 뜨고 사람을 보기 좋아하는 것은 양에 속하고, 눈을 감고 사람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음에 속한다.

○多睡者陽虛陰盛也, 無睡者陰虛陽盛也.

○잠이 많은 것은 양이 허하고 음이성한 것이고, 잠이 없는 것은 음이 허하고 양이성한 것이다.

○喜明者屬陽元氣實也, 喜暗者屬陰元氣虛也.

○밝은 곳을 좋아하는 것은 양에 속하는데, 원기가 실한 것이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것은 음에 속하는데, 원기가 허한 것이다.

○睡向壁者屬陰元氣虛也, 睡向外者屬陽元氣實也.

○잘 때 벽을 향해 눕는 것은 음에 속하는데, 원기가 허한 것이다. 바깥을 향해 눕는 것은 양에 속하는데, 원기가 실한 것이다.

病有五逆

5가지의 역증

黃帝曰, 何謂五逆. 岐伯曰, 熱病脈靜, 汗已出, 脈盛躁, 是一逆也. 病泄脈洪大, 是二逆也. 着痺不移, 脰¹肉破, 身熱, 脈偏絕, 是三逆也. 淫而奪形, 身熱色夭白, 及後下血衄, 血²篤重, 是謂四逆也. 寒熱奪形, 脈堅搏, 是謂五逆也.

황제가, "무엇을 오역(五逆)이라 합니까? "라고 하니, 기백이, "열병인데도 맥이 안정되다가 땀이 이미 난 뒤에도 맥이 왕성하고 조급하게 뛰는 것이 첫 번째 역증입니다. 설사인데도 맥이 홍대(洪大)한 것이 두 번째 역증입니다. 마비가 일정한 곳에 붙어 옮겨가지 않아 두터운 살이 생긴 것이 파열되고 몸에 열이 나며 맥이 치우치게 끊어지는 것이 세 번째 역증입니다. 음색(淫色)으로 인하여 형기(形氣)를 빼앗기고 몸에 열이 나며, 안색이 어둡고 창백하고 대변에 검붉은 피가 섞여 나오면 병이 위독한 것으로 이것을 네 번째 역증이라고 합니다. 오한발열로 형기를 빼앗겼으나 맥은 건실(堅實)한 것을 다섯 번째 역증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1. 脰 ㄱ 脰 ※《동의보감》↩

2. 血 : 血衄 ※《동의보감》↩



五味所入

오미가 들어가는 곳

酸入肝, 辛入肺, 苦入心, 鹹入腎, 甘入脾, 是謂五入¹.

신맛은 간으로 들어가고, 매운맛은 폐로 들어가고, 쓴맛은 심으로 들어가고, 짠맛은 신(腎)으로 들어가고, 단맛은 비로 들어간다. 이것을 오입(五入)이라고 한다.

¹. 五入 : 오입(五入)은 다섯 가지 맛이 각각 해당하는 장기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오행(五行) 이론과 연관된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음식의 맛과 인체 장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

五氣所病

오장육부의 기로 생기는 병

心爲噫, 肺爲咳, 肝爲語, 脾爲吞, 腎爲欠, 爲嚏, 胃爲氣逆, 爲噦, 爲恐, 大腸小腸爲泄, 下焦溢爲水,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尿, 膽爲怒, 是謂五病.

병이 심에 있으면 트림이 나오고, 폐에 있으면 기침이 나오고, 간에 있으면 말이 많아지고, 비에 있으면 신물을 삼키고, 신에 있으면 하품과 재채기를 한다. 병이 위에 있으면 기역(氣逆)과 딸꾹질, 두려움이 생긴다. 대소장에 있으면 설사를 한다. 하초에 있으면 수기가 넘쳐서 수종이 된다. 방광에 있으면 소변이 잘 통하지 못하여 용폐가 생기거나 소변을 참지 못하여 유노가 된다. 담(膽)에 있으면 잘 성내게 된다. 이것을 오병이라고 한다.

五精所并

오정이 아우르는 것

精氣并於心則喜, 并於肺則悲, 并於肝則憂, 并於脾則畏, 并於腎則恐, 是謂五并, 虛而相并者也, 註曰, 精氣, 謂火之精氣也, 肺虛而心精并之, 則爲喜, 他藏倣此.

기(精氣)가 심에 병합되면 기뻐하고, 폐에 병합되면 슬퍼하고, 간에 병합되면 근심하고, 비에 병합되면 두려워하고, 신(腎)에 병합되면 무서워한다. 이것을 오병(五并)이라고 하는데, 오장이 허한 틈을 타서 다른 장(臟)으로 장기가 서로 병합되는 것이다. 주(註)에, "정기(精氣)는 화(火)의 정기(精氣)이다. 폐가 허하여 정기가 심(心)으로 병합되면 기뻐한다"고 하였으니 다른 장기도 이와 같다.

五臟所惡

오장이 싫어하는 것

心惡熱, 肺惡寒, 肝惡風, 脾惡濕, 腎惡燥, 是謂五惡¹.

심은 열을 싫어하고, 폐는 한을 싫어하고, 간은 풍을 싫어하고, 비는 습을 싫어하고, 신(腎)은 조를 싫어한다. 이것을 오오(五惡)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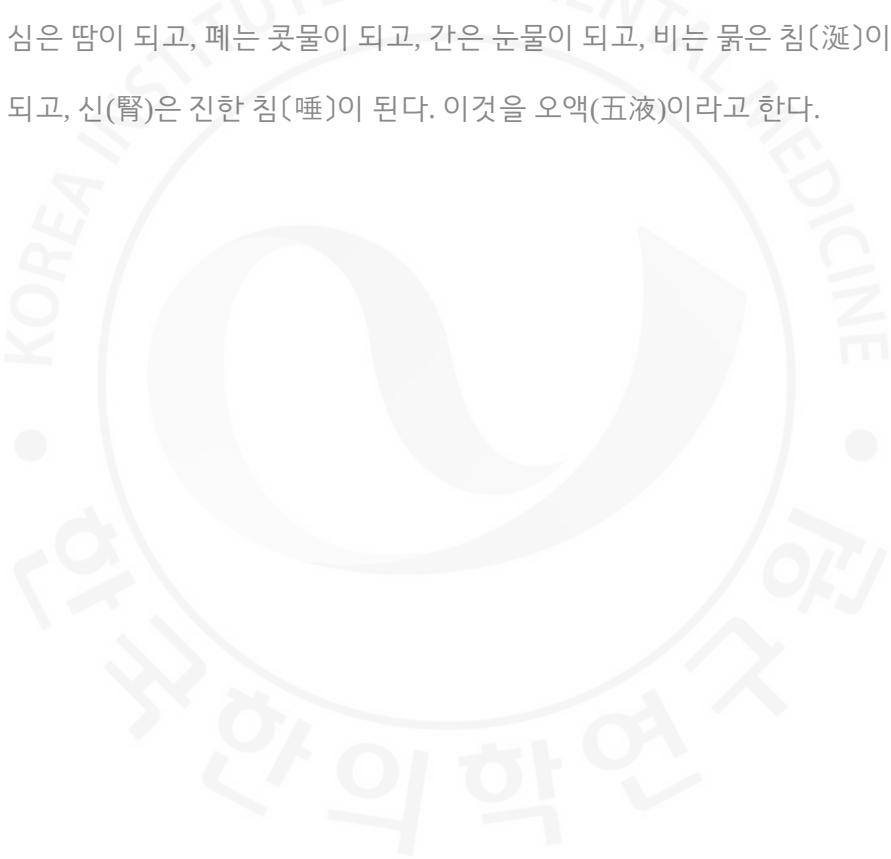
¹. 五惡 : 오오(五惡)는 오장(五臟)이 각각 싫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장의 특성과 그에 따른 병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

五臟化液

오장의 진액

心爲肝, 肺爲涕, 肝爲淚, 脾爲涎, 腎爲唾, 是謂五液.

심은 땀이 되고, 폐는 콧물이 되고, 간은 눈물이 되고, 비는 묽은 침(涎)이 되고, 신(腎)은 진한 침(唾)이 된다. 이것을 오액(五液)이라고 한다.



五味所禁

오미를 금하는 것

辛走氣, 氣病無多食辛. 鹹走血, 血病無多食鹹. 苦走骨, 骨病無多食苦. 甘走肉, 肉病無多食甘. 酸走筋, 筋病無多食酸, 是謂五禁, 無令多食.

신미(辛味)는 기분(氣分)으로 들어가므로 기병에는 신미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함미(鹹味)는 혈분(血分)으로 들어가므로 혈병에는 함미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고미(苦味)는 골(骨)으로 들어가므로 골병에는 고미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감미(甘味)는 육(肉)으로 들어가므로 육병에는 감미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산미(酸味)는 근(筋)으로 들어가므로 근병에는 산미(酸味)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오금(五禁)이라고 하니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五病所發

오병이 생기는 것

陰病發於骨, 陽病發於血, 陰病發於肉, 陽病發於冬, 陰病發於夏, 是謂五發.

음병은 골(骨)에서 생기고, 양병은 혈에서 생기고, 음병은 육에서도 생기고, 양병은 겨울에 생기고, 음병은 여름에 생긴다. 이것을 오발(五發)이라고 한다.¹

¹. 음양의 속성에 따른 질병의 발생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음병은 뼈, 살, 겨울과 연관되며, 양병은 혈, 여름과 연관된다. ←

五邪¹所見

오사가 나타나는 것

春得秋脈, 夏得冬脈, 長夏得春脈, 秋得夏脈, 冬得長夏脈, 是謂五邪, 皆同命, 死不治.

봄에 가을 맥이 나타나고, 여름에 겨울 맥이 나타나고, 장하(長夏)에 봄 맥이 나타나고, 가을에 여름 맥이 나타나고, 겨울에 장하맥(長夏脉)이 나타난다. 이것을 오사(五邪)라고 하는데, 모두 같은 운명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죽는다.²

¹. 五邪 : 오사(五邪)는 다섯 가지 사악한 기운을 의미한다. 이는 풍(風), 한(寒), 서(暑), 습(濕), 조(燥)를 가리키며, 인체에 해를 끼치는 외부 요인이다. ←

². 각 계절에 나타나는 맥이 그 계절의 특성과 맞지 않고 다른 계절의 맥과 유사할 때, 이를 매우 위험한 증상으로 본다 ←

五臟所藏¹

오장이 저장하는 것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臟所藏.

심은 신(神)을 저장하고, 폐는 백(魄)을 저장하고, 간은 혼(魂)을 저장하고, 비는 의(意)를 저장하고, 신(腎)은 지(志)를 저장한다. 이것을 오장이 저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내경》]

¹. 五臟所藏 :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오장육부(五臟六腑) 이론과 관련이 있다. 오장은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을 가리키며, 각 장기가 특정한 정신적, 생리적 기능을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을 나타낸다. ←

五邪所亂

오사가 어지럽히는 것

邪入於陽則狂, 邪入於陰則痺, 搏陽則爲巔疾, 搏陰則爲瘡, 陽入之陰則靜, 陰出之陽則怒, 是謂五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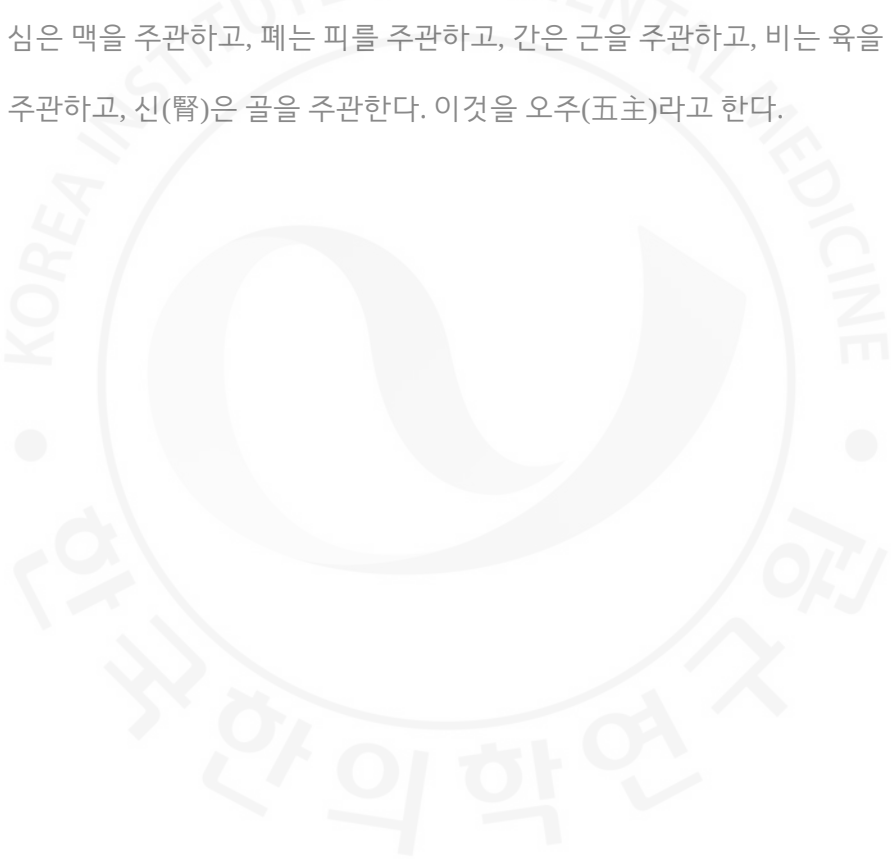
사기(邪氣)가 양으로 들어가면 미치고, 사기(邪氣)가 음으로 들어가면 비증(痺證)이 된다. 사기(邪氣)가 양을 치면 전질(癲疾)이 되고, 음을 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양의 사기(邪氣)가 음으로 들어가면 환자가 안정되고, 음의 사기(邪氣)가 양으로 들어가면 성내게 된다. 이것을 오난(五亂)이라고 한다.

五藏所主

오장이 주관하는 것

心主脈, 肺主皮,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 是謂五主.

심은 맥을 주관하고, 폐는 피를 주관하고, 간은 근을 주관하고, 비는 육을 주관하고, 신(腎)은 골을 주관한다. 이것을 오주(五主)라고 한다.



五勞¹所傷

다섯 가지 과로로 인한 손상

久視傷血, 久臥傷氣, 久坐傷肉, 久立傷骨, 久行傷筋, 是謂五勞所傷.

오래 보면 혈을 상하고, 오래 누워 있으면 기를 상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육을 상하고, 오래 서 있으면 골을 상하고, 오래 걸으면 근을 상한다. 이것이 오로(五勞)로 상하는 것이라고 한다.

1. 五勞 : 오로(五勞)는 다섯 가지 과도한 노동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오래 보는 것, 오래 누워있는 것, 오래 앉아있는 것, 오래 서있는 것, 오래 걷는 것을 가리킨다. 오로가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五脈應象

오맥이 상응하는 모양

肝脈弦, 心脈鉤, 脾脈代, 肺脈毛, 腎脈石, 是謂五藏之脈.

간맥은 현맥(弦脉)이고, 심맥은 구맥(鉤脉)이고, 비맥은 대맥(代脉)이고, 폐맥은 모맥(毛脉)이고, 신맥(腎脉)은 석맥(石脉)이다. 이것을 오장의 맥이라고 한다.¹

¹. 현(弦): 활시위처럼 팽팽하고 곧은 맥

구(鉤):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맥

대(代): 맥이 한 번 뛰고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맥

모(毛): 가늘고 부드러운 털과 같은 맥

석(石): 돌을 만지는 것처럼 단단하고 뻣뻣한 맥 ←

脈當有神¹

맥에는 신(神)이 있어야 한다

脈之不病, 其神不言, 當自有也, 脈之既病, 當求其神之有與無焉, 謂如六數七極, 熱也, 脈中有力, 卽有神也, 三遲二敗, 寒也, 脈中有力, 卽有神也, 熱而有神, 當泄其熱, 則神在焉. 寒而有神, 當去其寒, 則神在焉, 寒熱之脈, 無力無神, 將何藥而泄熱去寒乎, 苟不知此而遽泄去之, 將何依以生? 所以十亡八九矣.

맥박에 이상이 없으면 그 신(神)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있는 것이다. 맥박에 이상이 있으면 그 신의 유무를 살펴봐야 한다. 가령 6번 뛰는 삭맥(數脈)이나 7번 뛰는 극맥(極脈)은 열증인데, 맥이 유력하면 신이 있는 것이다. 3번 뛰는 지맥(遲脈)이나 2번 뛰는 패맥(敗脈)은 한증인데, 맥이 유력하면 신이 있는 것이다. 열증이면서 신이 있을 때는 그 열을 내보내야 신이 보존된다. 한증이면서 신이 있을 때는 한을 제거해야 신이 보존된다. 한열의 맥박에 힘도 없고 신(神)도 없다면, 어떤 약으로 열을 내리고 한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갑자기 열을 내리고 한을 제거한다면, 무엇에 의지하여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열 명 중 여덟아홉 명이 죽는 것이다.

¹. 이하는 《동의보감》 진맥(診脈)문에 있다. <



脈以胃氣爲本

맥은 위기(胃氣)를 근본으로 삼는다

胃氣者, 中氣也, 不大不細, 不長不短, 不浮不沈, 不滑不瀉, 應手冲和, 難以名狀者, 爲胃氣, 有胃氣則有力, 有力則有神. 無胃氣則無力, 無力則無神, 有神則生, 無神則死.

위기(胃氣)는 중기(中氣)이다. 대(大)하지도 않고 세(細)하지도 않으며, 장(長)하지도 않고 단(短)하지도 않으며, 부(浮)하지도 않고 침(沈)하지도 않으며, 활(滑)하지도 않고 색(瀉)하지도 않는다. 진맥하는 손에 응하는 것이 부드러워(冲和) 그 모습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위기이다. 위기(胃氣)가 있으면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신(神)이 있다. 위기(胃氣)가 없으면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신(神)이 없다. 신(神)이 있으면 살고 신(神)이 없으면 죽는다.

○人以水穀爲本, 故人絕水穀則死, 脈無胃氣亦死, 所謂無胃氣者, 但得眞藏脈, 不得胃氣也.

○사람은 물과 곡식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과 곡식을 끊으면 죽고, 맥에 위기가 없어도 죽는다. 이른바 '위의 기운이 없다'는 것은 단지 진장(眞藏)의 맥박만 있고 위(胃)의 기운은 얻지 못한 것을 말한다.



眞藏脈

진장맥

眞肝脈至, 中外急如循刀刃, 責責然如接¹琴瑟絃. 眞心脈至, 堅而搏, 如循薏苡子累累然. 眞肺脈至, 大而虛, 如以毛羽中人膚. 眞腎脈至, 搏而絕, 如指彈石辟辟然. 眞脾脈至, 弱而乍數乍疎. 諸眞藏脈見, 皆死不治也.

간의 진장맥이 나타나면 안팎이 급하여 마치 칼날을 따라가는 것 같고, 뻣뻣하여 마치 거문고와 비파의 줄을 누르는 듯하다. 심의 진장맥이 나타나면 단단하고 박동하여 마치 울무 알갱이를 연이어 만지는 것 같다. 폐의 진장맥이 나타나면 맥이 대(大)·허(虛)하여 마치 깃털로 사람의 피부를 쓰다듬는 것과 같다. 신(腎)의 진장맥이 나타나면 맥이 박동하다가 끊어져 마치 손가락으로 돌을 튕기는 것처럼 '탁탁'하는 소리가 난다. 비의 진장맥이 나타나면 맥이 약하면서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드물다. 진장맥이 나타나면 모두 치료하지 못하고 죽는다.

1. 接 : 按 ※《동의보감》↩

損至脈

손맥、지맥

一呼一至, 一吸一至, 名曰損人, 雖能行, 猶當着床, 蓋血氣皆不足也。再呼一至, 再吸一至, 名曰無魂。無魂者, 當死。人雖能行, 名曰死屍¹

한 번 숨을 내쉴 때 한 번 맥이 뛰고, 한 번 숨을 들이쉴 때 한 번 맥이 뛰는 것을 '손인(損人)'이라고 한다. 사람이 걸을 수는 있지만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니 혈기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록 걸을 수 있더라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어야 하니, 대개 혈기가 모두 부족한 것이다. 두 번 숨을 내쉴 때 한 번 맥이 뛰고, 두 번 숨을 들이쉴 때 한 번 맥이 뛰는 것을 '무혼(無魂)'이라고 한다. 무혼맥이 있으면 당연히 죽으니 걸을 수 있더라도 '죽은 시체〔死屍〕'라 부른다.

○上部有脈, 下部無脈, 其人當吐, 不吐者死. 上部無脈, 下部有脈, 雖困無能爲害. 所以然者, 人之有尺², 比如樹之有根, 枝葉雖枯槁, 根本將自生, 脈有根本, 人有元氣, 故知不死.

○상부(上部)에 맥(脈)이 있고 하부(下部)에 맥(脈)이 없으면 토법을 써야 하니 토하지 않으면 죽는다. 상부에 맥(脈)이 없고 하부에 맥이 있으면 비록 지쳐 보여도 해롭지 않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발이 있는

것이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아서 가지와 잎이 비록 시들었더라도 뿌리는 장차 스스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맥에 뿌리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원기가 있는 것이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死屍 : 行屍 ※《동의보감》↩

2. 尺  足 ※《동의보감》초간본

尺 ※갑영동, 기영나, 기영국, 갑완와, 남산 ↩

離經脈

이경맥

一呼一至曰損, 脈離經. 一呼六至曰至¹, 脈離經. 離經二²脈, 惟將產婦及陰陽易病有之。

한 번 숨을 내쉴 때 맥박이 한 번 뛰는 것을 '손(損)'이라 하며 이는 맥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한 번 숨을 내쉴 때 맥박이 여섯 번 뛰는 것을 '지(至)'이라 하며 이 또한 맥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상에서 벗어난 맥은 오직 출산을 앞둔 산모와 음양역병(陰陽易病)³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난다.

1. 至 : 脫 ※다른 판본 ←

2. 二 之 ※문맥상 ←

3. 음양역병(陰陽易病) : 음기와 양기가 서로 바뀐 상태를 의미하는 병증을 말한다. ←

濇促結代脈皆中止

색맥、촉맥、결맥、대맥은 모두 중간에 멎는다

濇脈細而遲, 往來難, 時一止, 然三秋診得濇, 爲秋正脈, 右手寸口浮短而濇爲肺正脈, 非病脈也.

색맥(濇脉)은 가늘고 더디며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때로 한 번 멎는 것이다. 그러나 가을 석 달 동안 진맥했을 때 색맥이 나타나는 것은 가을의 정상적인 맥이다. 오른손의 촌구맥이 부단(浮短)하면서 색(濇)한 것은 폐의 정상적인 맥이니 병맥이 아니다.

○脈來緩, 時一止復來, 名曰結脈. 來數, 時一止復來, 名曰促. 陽盛則促, 陰盛則結. 此皆病脈也.

○맥이 느리며 때로 한 번 멎었다가 다시 오는 것을 결맥(結脉)이라고 한다. 맥이 빠르게 오다가 때때로 한 번 멈추었다가 다시 오는 것을 촉맥(促脉)이라고 한다. 양기가 성하면 촉맥이 되고 음기가 성하면 결맥이 되니 이것들은 모두 병맥(病脉)이다.

其促有五：一曰氣, 二曰血, 三曰食, 四曰痰, 五曰痰. 但藏熱則脈促, 以氣血痰飲留滯不行故也. 促結非惡脈也.

촉맥에는 5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기(氣)이고, 둘째는 혈(血)이며, 셋째는 음(飮)이고, 넷째는 식(食)이며, 다섯째는 담(痰)이다. 장(藏)에 열이 있으면 촉맥이 나타나니 이것은 기(氣)、혈(血)、담(痰)、음(飮)이 머물러 정체되어 순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촉맥, 결맥은 아주 나쁜 맥은 아니다.

○代者, 脾絶之脉. 脾脉者, 平和不可得見, 衰乃見耳. 如雀之啄, 如屋漏水之下滴, 是脾之衰見也.

○대맥은 비장(脾臟)이 끊어진 맥이다. 비맥(脾脉)은 몸이 편안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몸이 쇠하면 나타난다. 비맥은 마치 참새가 쪼아대는 것 같고, 지붕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비장이 쇠약해져 나타나는 것이다.

해제

개요

《수민묘전》은 조선 후기 제22대 왕 정조(正祖, 1752-1800)가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바탕으로 증론(證論)과 맥결(脈訣)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친히 편찬한 의학서이다. 정조는 세자 시절 춘저(春邸)에 있을 때부터 의학서를 탐독하였으며, 병술년(1766)부터 병신년(1776)까지 10년간 선왕 영조의 질병을 시측(侍側)하면서 조석으로 맥결과 약론, 의리를 연구하였다. 정조는 《홍재전서》 수록 친찬서에서 《동의보감》에 대해 "논리논방(論理論方)이 서로 착잡하여 체례(體例)가 정제(整齊)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그 예를 좀 고쳐 그 정화(精華)를 발취하여" 《수민묘전》을 편찬하였다고 밝혔다. 책의 제목 '수민묘전(壽民妙詮)'은 송대 유학자 이천(伊川) 정이(程頤, 1033-1107)의 시어에서 인용한 것으로, "때에 맞게 사용하여 백성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의미이다.

저자

정조(正祖, 1752-1800)는 조선 후기의 제22대 국왕으로 재위 기간은 1776년부터 1800년까지이다. 휘(諱)는 산(祿), 자(字)는 형운(亨運), 호(號)는 홍재(弘齋)이다.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와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정조는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의학적 견해를 담은 의서를 직접 편찬한 군주이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문화정치를 펼쳤으며 《홍재전서》를 비롯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직접 자신의 질병에 처방하였으며, 《수민요전》 외에도 내의원에 명하여 《제중신편(濟衆新編)》(1799)을 편찬하게 하였다.

서지사항 및 판본

《수민요전》은 원래 4권 2책의 본편과 탕액 처방을 담은 5권의 속편으로 구성되어 총 9권이었으나, 현재는 본편 4권 2책 중 2권만이 전하고 속편 5권은 모두 유실되었다. 현존본은 필사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수민요전》 친찬서(親撰序)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서문에 본서가 《동의보감》에서 정화(精華)를 발췌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수민요전》의 내용이 축약되어 《제중신편》(1799)의 증론(證論)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제중신편》 편찬에 앞서 만들어진 선행 작업으로 추정된다.

구성 및 특징

《수민요전》은 원래 4권 2책의 본편과 5권의 속편으로 구성되어 총 9권이었다. 본편은 《동의보감》에서 정화(精華)를 발췌하여 신(身), 형(形), 정(精), 기(氣)에서부터 부인과, 소아과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증론과 맥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정조는 《동의보감》의 각 조문마다 실려 있는 처방을 모두 생략하고, 병증에 대한 의론(醫論)과 증상 위주로 발췌하였다. 이는 정조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제를 가르치는 의사들이 맥진, 병증, 탕약과 약제를 모두 한 책에서 섞어서 다뤄 의도와 치료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급한 해결만 추구하는 폐단"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다. 속편 5권은 탕액(湯液)에 관한 처방을 추가로 초록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2권의 내용은 《동의보감》의 <내경편(內景篇)>, <외형편(外形篇)>, <잡병편(雜病篇)>에서 선별하여 발췌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경편>에서는 신형(身形), 정기신(精氣神), 오장육부(五臟六腑) 등 인체 내부의 생리와 병리에 관한 증론과 맥결을 담았고, <외형편>에서는 두면(頭面), 이목구비(耳目口鼻), 사지(四肢) 등 신체 외부 각 부위의 질병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잡병편>에서는 각종 질병의 증론을 수록하였다. 1권에서는 인체의 생리와 장부 기능, 정·기·신·혈과 같은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질병 발생 원인을 설명하며, 예방과 수양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2권은 신체 각 부위와 장부별 질병, 진단 및 치료법을 다루며, 특히 임상에서 유용한 증상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두 권 모두 《동의보감》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고 재구성한 형태로, 원전의 복잡

한 이론과 사례를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동의보감》의 각 조문마다 실려 있는 처방을 모두 생략하고, 병증에 대한 의론(醫論)과 증상 위주로 발췌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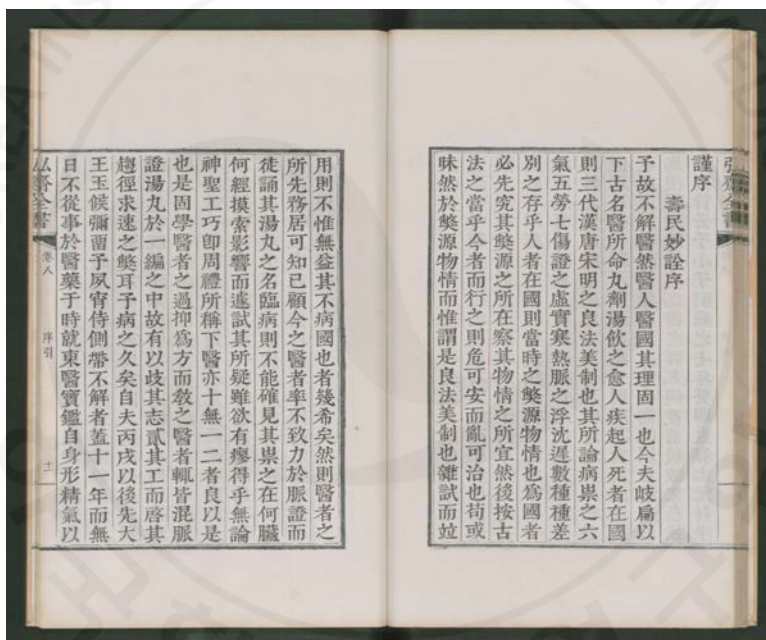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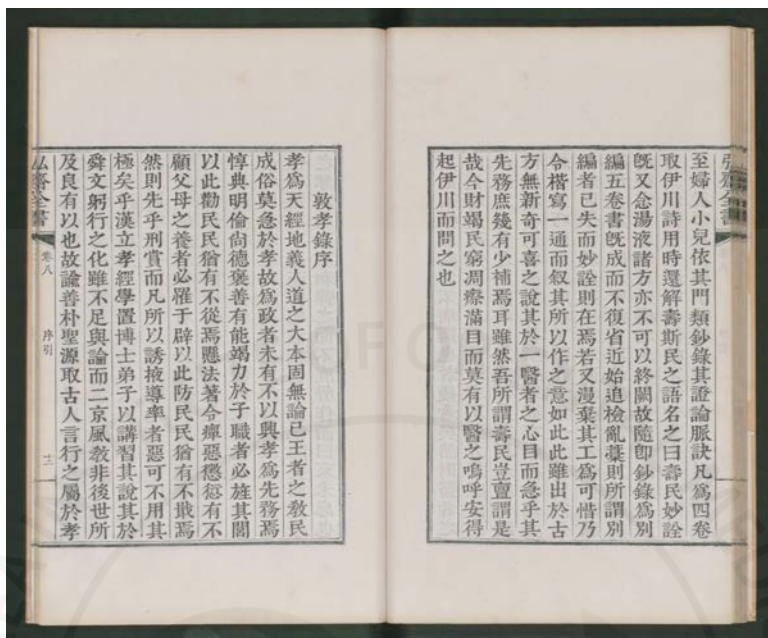
정조는 10년간 영조를 간병하며 의학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의보감》에서 증론과 맥결을 발췌·정리하고, 탕액편의 처방은 별도의 속편으로 구성하여 《수민요전》을 편찬하였다. 정조는 《수민요전》 친찬서에서 의학과 국가 통치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밝히며, 당시 의학 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의사들이 진맥과 증상 파악에는 소홀하고 탕제와 환제의 이름만 암기하는 현실을 비판하였으며, 의서들이 맥진·병증·처방을 한 책에 혼재시켜 의도가 불명확하고 속성 위주의 학습을 조장한다고 보았다. 의학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조선이 유학을 숭상한 결과 의술을 천시하는 풍속을 비판하면서, 의술 역시 유학의 일부임을 강조하였다. 송나라 황제들과 유학자들이 의서를 저술한 사례를 들어 의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술을 알아야 한다는 유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수민요전》은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편찬한 유일한 의학서로, 정조의 의학관과 의료 정책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홍재전서弘齋全書》 서문 이미지

- 규장각본에는 서문이 없으나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장서각본)》에 8권 〈壽民妙詮序〉와 9권 〈壽民妙詮九卷 寫本〉이 실려있어 내용을 위해 〈壽民妙詮九卷 寫本〉을 가져와 본 번역서에 실었다. 〈壽民妙詮九卷 寫本〉에는 간략 서문과 정조가 친히 작성한 서문(親撰序)이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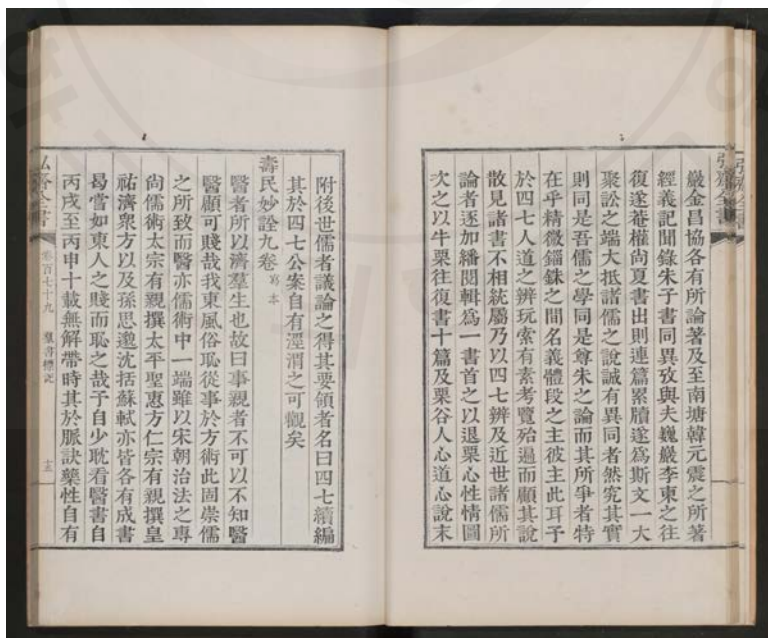
※ 《홍재전서弘齋全書》 8권 〈壽民妙詮序〉 ※ 이미지 출처 : 장서각(K4-5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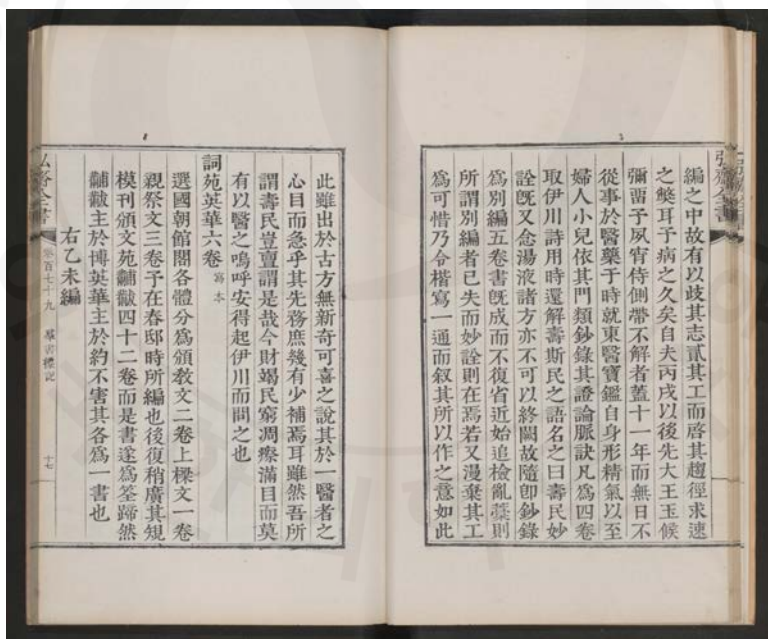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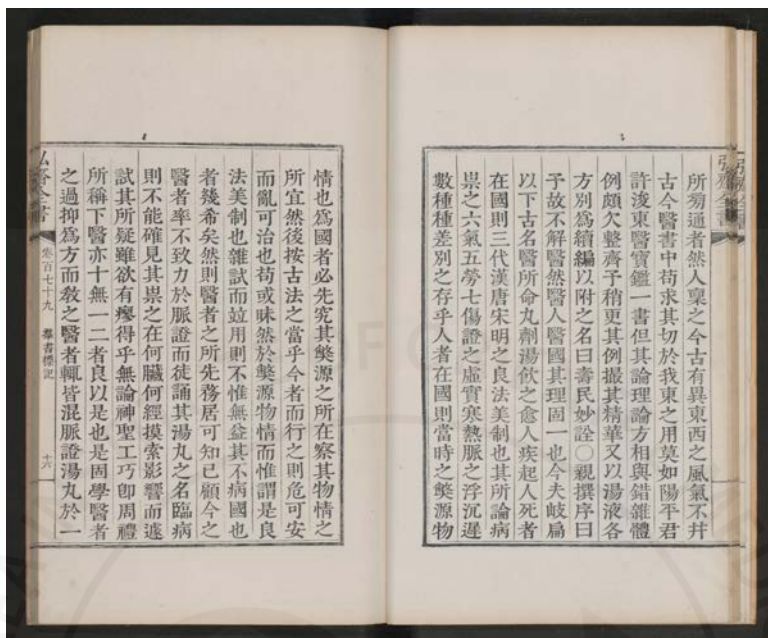




※ 이미지 출처 : 장서각(K4-5700)

※ 《홍재전서弘齋全書》9권 〈壽民妙詮九卷 寫本〉





※ 이미지 출처 : 장서각(K4-5700)

※ 참고자료

정조. 《壽民妙詮》(청구기호.奎4809). 규장각

정조. 《弘齋全書》(청구기호.奎4465-v.1-38). 규장각

규장각. 《濟衆新編》 해제(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02077_00¬es=lang)

내손안에동의보감app. 《동의보감》(<https://app.medicclassics.kr/>)



일러두기

- 이 번역서는 《수민묘전(壽民妙詮)》의 卷2 중에서 [외형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 저본은 규장각에 소장된 《壽民妙詮》(청구기호.奎4809)으로 서문과 발문이 없는 필사본으로 된 2책의 영본이다.
- 규장각본에는 서문이 없으니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8권에 〈壽民妙詮序〉와 9권에 〈壽民妙詮九卷 寫本〉이 실려있어 내용을 위해 〈壽民妙詮九卷 寫本〉을 가져와 번역서 앞에 실었다. 〈壽民妙詮九卷 寫本〉에는 간략 서문과 정조의 찬집서(親撰序)가 실려있으며, 내용에는 8권의 〈壽民妙詮序〉가 포함되어 있다.
- 대교본으로 한의학교전DB의 《동의보감》을 참조하였다.

표기법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 의미가 동일한 이체자나 이형자는 가능한 현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로 수정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글자는 다르나 당시 통용되었던 글자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예시) 斂=斂, 莛=莛, 褰=褰, 郤=郤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서적의 작은 글씨
 - 【】: 음각
 - {} : 양각
 - 임의 제목 : 원서에는 없으나 내용 이해를 위해 삽입한 제목

출판사항

서 명 : 국역 수민묘전【잡병편】 壽民妙詮【雜病篇】

원저자 : 정조(正祖)

국 역 : 구현희

해 제 : 구현희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5년 11월 10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한 이는 오준호이며, 정본화된 원문 텍스트를 만들어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5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
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ISBN 978-89-5970-602-0 (PDF)